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실패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송경호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7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북한의 인터넷 변천과정	12
제1절 인터넷에 관한 북한의 인식 변화	12
1. 북한 지도부의 인식	12
2. 북한의 정보화 정책	18
제2절 북한의 인터넷 시설 및 운영 현황	22
1. 인터넷 기반시설 및 인프라 현황	22
2. 인터넷 운영 현황	40
가. 대내 인터넷(인트라넷) 운영 실태	40
나. 대외 인터넷 운영 실태	45
제3장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실태	49
제1절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현황	49
제2절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운영 실태	55
1. 운영 주체 및 성격	55
2.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의 주요 내용과 특징	56
가. 구국전선(ndfsk.dyndns.org)	56

나. 조선신보(www.korea-np.co.jp)	59
다.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60
라. 대동연구소(www.daedong615.com)	62
마. 한총련(hcy.jinbo.net)	67
바. 민주노총 서울본부(seoul.nodong.org)	69
사. 자주민보(www.jajuminbo.net)	74
아. 기타	75
제4장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77
제1절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문제점	77
제2절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대응방안	85
제5장 결론	92
참고문헌	95

표 목 차

<표 2-1> 북한의 정보통신망 건설 현황	28
<표 2-2> 남북한 정보화 통신 인프라 비교	32
<표 2-3>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 및 주요 S/W 현황	34
<표 2-4> 북한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관	36
<표 2-5> 북한 소프트웨어 관련 주요 일지	39
<표 2-6> 광명의 개발 과정	43
<표 3-1> 차단된 해외 친북사이트 현황	50
<표 3-2> 차단되지 않은 해외 친북사이트 현황	51
<표 3-3> 인터넷과 타매체의 차별성	52
<표 3-4> 국내 지역·분야별 친북사이트 현황	53
<표 3-5>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운영주체 및 주요내용	55
<표 3-6> 대동연구소 관련 사이트	6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현대 사회에서 정보화는 세계질서를 변화시켜 나가는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정보화의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모색하여 왔다. 그것은 인터넷이 최근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버릴 정도로 매우 유익하고 친숙해져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은 1969년 지금의 인터넷 모체인 ARPANET이 개발된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어 왔다.

현재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각 나라들의 통신망을 통해 유·무선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정보화 수단으로 각광받기에 이르렀다.¹⁾ 한국의 경우 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세계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부문은 세계 제1위를 차지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0년 5월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3,70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7.8%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9년에 비해 0.6%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²⁾

특히 인터넷은 TV와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 이용이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³⁾

1) 조인상, 정신전력연구, “북한 및 친북 좌파경향 인터넷 사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정신전력연구 제35호, 2004. 12, 85면.

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2, 23면.

3) 양승찬이 2002년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의 매체 이용은 하루 평균 이용량을 볼 때 신

북한의 경우 한국의 정보화와 비교하여 볼 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군사 분야를 비롯하여 인터넷 해킹능력⁴⁾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북한의 정보화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최고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감으로부터 출발되었다.

그들은 미국이 첨단장비를 사용하여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유사시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고 있다.

더구나 첨단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현대전에 있어서 모든 장비들을 컴퓨터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활용은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또한 인터넷이란 거대한 흐름을 거부해서는 언제 어느 때 생존의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1999년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든 미 국방부를 비롯한 미군 인터넷을 가장 잘 애용하고 있는 국가가 북한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미 국방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⁵⁾

북한은 한민전방송을 통해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공간이며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 (2003년 합참)라고 대남 사이버투쟁 지침을 하달하였다.⁶⁾

김정일 시대의 공식 개막과 더불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천명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사상중

문의 경우 평균 40.5분, TV의 경우 166.7분, 인터넷은 74.9분, 라디오는 59.5분으로 나타났다.

4) 북한의 해커부대는 평양시 대동강 구역 문신동에 위치한 정찰총국 예하 121소를 121국(사이버지도국)으로 승격시켰고 소속 병력도 기존의 500명에서 3,000명으로 증원하여 전원 해외유학 특혜를 부여하고 사이버전에 올인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2011. 6. 2.

5) 조선일보, 1999. 4. 12.

6) 중앙일보, 2003. 2. 25.

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 노선을 제시하는 한편 과학기술 중에서도 정보화에 중점을 두어 왔다.⁷⁾

김정일은 1993년 8월 “전국체신일꾼대회”에 보낸 ‘체신사업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자’를 통해 “체신사업은 혁명과 건설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무기로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수단”임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개인이 자유롭게 외부세계와의 인터넷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북한이 외부세계와의 인터넷을 차단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인터넷을 개방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사상이 유입되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이트를 제 3국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를 통해 북한은 체제선전,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 주체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 우리식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등을 대대적으로 전파시켜 왔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민족공조, 북핵 합리화를 촉구하면서 반미, 반한 감정을 부각시키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한편 인터넷을 강력한 심리전의 무기로 활용하고 한국 네티즌들에게 일방적인 친북의식 고취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 내부의 진보계열 인터넷사이트에서는 북한의 주의, 주장 등 각종 게시물들을 여과 없이 게시하고 이들 선전선동의 내용들을 정치적 수단과 구호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7)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12, 1면.

따라서 국내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해방구’가 된지 오래이다.

특히 북한 및 친북좌익권의 인터넷 공간을 통한 사이버 사상투쟁을 계속 방치한다면 한국의 국가안보에 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⁸⁾

국내외의 친북단체들은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구국전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의 선전선동 내용을 원문 그대로 소개 선전하는 한편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광범위성 등을 악용하여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각계각층의 사회 불만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좌경사상을 전파시키는 등 한국사회의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2004년 7월 14일 한국갤럽이 성인 1,0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은 5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 비해 신세대일수록 안보의식은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이 39%를 차지하는 반면 북한은 33%로 나타났다. 20대에서는 미국이 58%를 차지하였으며 북한은 20%에 그쳤다.

문제는 북한보다도 미국을 한국의 국가안보에 더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질문에는 37.2%가 호감을 보인 반면 53.7%가 반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 철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54.8%가 반대를 보였고 찬성은

8) 조인상, 앞의 책, 86~87면.

31.7%에 그쳤다.

이와 같이 한국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은 2011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그 어느 때 보다 전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 해 나갈 것과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갈 것”,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 나갈 것”⁹⁾을 촉구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2004년 11월 북한체제 선전 등을 목적으로 한 31개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였으나 그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여 왔다.¹⁰⁾

2011년 5월 31일 현재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는 1,000여개로 파악되었다. 이중 북한 직영 및 해외 친북한사이트는 120여개로 74개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다.

국내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는 840여개로, 사회 분야가 600여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 분야 170여개, 학원 분야 100여개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들의 체제 전복 기도를 사전에 봉쇄시키면서 북한의 대남적 화통일 전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좌경사상 확산의 진원지를 발본색원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9) 로동신문, 2011. 1. 1.

10) 정부가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자 구국전선을 비롯한 통일학연구소 등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에서는 기존 URL 주소를 일부 변경하여 새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또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각기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차단에 관해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선전선동 내용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북한은 인터넷 매체의 급속한 발달을 계기로 대남 사이버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등 제반 분야의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자들은 북한의 정보통신 분야와 사이버 테러, 사이버심리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왔다. 대표적인 연구자들은 유동열, 최정립, 주인환, 박순옥, 남성욱, 조인상, 양문수 등과 연구단체로는 통일연구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유동열은 “북한 및 국내 좌파권의 사이버투쟁 실태”¹¹⁾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 및 국내외 친북세력들이 인터넷을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사이버투쟁을 강화시켜 왔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이버투쟁의 특성은 활용의 편의성, 정보 확산의 신속성, 대상의 광범위성, 통신의 쌍방향성, 경비의 저렴성, 정보의 축적성, 정보의 보안 유지성, 정보의 취약성, 정보원의 익명성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체계와 그 추진 양상, 국내 좌파권의 사이버투쟁 실태, 향후전망을 제시하였다.

조인상은 “북한 및 친북 좌파경향 인터넷사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¹²⁾에서 신세대 장병들에 있어서 인터넷은 육군의 경우 중대단위, 해군과 공군은 최소단위 근무 장소에 1대 이상의 인터넷 PC가 설치되어

11) 유동열, “북한 및 국내 좌파권의 사이버투쟁 실태”, 자유민주연구 제2권 제2호, 자유민주연구학회, 2007. 12.

12) 조인상, “북한 및 친북 좌파경향 인터넷사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정신전력연구 제35호, 2004. 12.

있는 상황을 직시하면서, 북한이 노리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파쇼정권 타도, 공산주의 용공정권 수립이라는 무차별적인 사이버공간에서의 투쟁은 정신전력 유지와 정훈교육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장병 정신교육 대안으로 인터넷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과 주한미군 철수,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등의 내용을 세밀하고 논리성을 갖춘 연구 자료들을 선정하여 DB 자료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다양한 각도에서 이에 대응한 전문 코너를 마련하여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통해 친북 의식화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야 한다.

주임환은 “인터넷 친북한 사이트를 통한 대남심리전에 관한 연구”¹³⁾를 통해 북한 언론의 본질과 성격, 대남 심리전과 언론매체,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최정남은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남 심리전 전개 특성에 관한 연구”¹⁴⁾에서 북한의 대남심리전 특징 및 매체 기법, 친북 인터넷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심리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남성옥은 “인터넷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현황”¹⁵⁾을 통해 북한 인터넷에 대한 인식과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특징, 향후 전망을 제안하였다.

박순옥은 “사이버상의 보안경찰 활동 연구”¹⁶⁾에서 북한의 사이버공

13) 주임환 “인터넷 친북한 사이트를 통한 대남심리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

14) 최정남,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남심리전 전개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

15) 남성옥, “인터넷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현황”,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1호 2000.

세 및 사이버 보안사법 실태, 사이버 보안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통일연구원은 “남북한 인터넷 교류 · 협력 발전방안”¹⁷⁾에서 북한의 인터넷 인프라 현황과 남북 인터넷 교류협력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연구”¹⁸⁾에서 북한의 IT산업 및 정보화 현황, 남북한 정보화 수준 비교, 통일한국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 IT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을 모색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는 북한의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하여 사이버 테러, 사이버심리전을 중점으로 연구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축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대응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다소 미비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6) 박순옥, “사이버상의 보안경찰 활동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

17) 통일연구원, “남북한 인터넷 교류 · 협력 발전방안”, 통일연구원, 2004. 5.

18)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12.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북한이 인터넷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던 1990년을 전후한 시기로부터 2011년 3월까지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접근 서술방법과 내용 분석기법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먼저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실태와 문제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터넷에 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변화와 북한의 인터넷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형태와 메시지의 중심 내용,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그 실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내용분석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대표적인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로 ① 구국전선, ② 조선신보, ③ 우리민족끼리, ④ 대동연구소, ⑤ 한총련, ⑥ 민주노총 서울본부, ⑦ 자주민보를 선정하여 이들 인터넷사이트의 구성요소와 메시지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들 내용들을 분석 검토 하였다.

더구나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 관련 담당자들의 협조를 통해 이들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 자료로는 국내외에서 발행한 서적 및 논문, 간행물을 비롯하여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정책연구자료, 북한 원전,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자료 및 신문, 방송, 경찰청 내부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체계에 입각하여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 ‘북한의 인터넷 변천과정’에서는 ‘인터넷에 관한 북한의 인식 변화’와 ‘북한의 인터넷 시설 및 운영 현황’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전자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과 ‘북한의 정보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후자에서는 ‘인터넷 기반시설 및 인프라 현황’, ‘인터넷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실태’에서는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현황’과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운영 실태’로 나누어 정밀 분석하였다. 전자에서는 차단된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와 차단되지 않은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및 한국의 지역·분야별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후자에서는 ‘운영 주체 및 성격’,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 검토하였다.

특히 북한이 해외 교포 및 교포단체들을 내세워 직·간접적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여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제4장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서는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문제점’과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연구 결과물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제2장 북한의 인터넷 변천과정

제1절 인터넷에 관한 북한의 인식 변화

1. 북한 지도부의 인식

인터넷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이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 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되었다.

북한은 21세기 세계적인 산업발전 흐름과 인터넷 발전 추세에 편승하여 한편으로는 국가 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내세우고 이에 적극 대처하여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첨단장비로부터 자국의 생존을 보호하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가 정보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1년 10월 28일 ‘전국과학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통해 “과학기술정보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사업을 잘하여야 적은 밑천과 품을 들여 과학기술발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귀중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일군 대열을 능력 있는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정보수단들을 현대화하며 현대적 통신수단과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검색체계를 세워 과학기술 정보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 자료를 종합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제때에 알려주는 과학통보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19)고 밝혔다.

1993년 8월 ‘전국체신일꾼대회’에 보낸 서신 “체신사업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자”에서는 “체신사업은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 하려는 위력한 무기로 근로인민 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는데 복무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또한 21세기 첨단과학 발전에 있어 정보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역설한 바 있다.

“모든 일꾼들이 정보산업의 중요성과 그 의의를 똑똑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지금 일부 일꾼들은 컴퓨터라고 한다면 타자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기본이 아닙니다...지금 우리나라에서 컴퓨터기술이 빨리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일꾼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시대의 요구에 맞게 산업구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정보발전 계획을 똑똑히 세우고 정보발전기술 발전 사업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정보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나갈 것” 20)을 촉구하였다.

이라크 전쟁 이후 김정일은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이다. 즉 누가 평소에 적의 군사기술정보를 더 많이 장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장에서 적의 군사 지휘정보를 얼마나 강력하게 제어하고 자기의 정보력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21)고 정보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98년에는 컴퓨터 교육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지시하였고, 1999년을

19) 김정일, 김정일 선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215면.

20) 김정일, “새 세기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김정일 선집 제1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113~114면.

21) 김홍광, “북한의 사이버정보실태”, 북한 2005년 5월호, 북한연구소, 2005. 32면.

과학의 해로 지정하였다.

1998년 2월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장을 현지도 하였으며, 1991년 1월과 3월에는 과학원과 과학원 합흥분원을, 2000년 4월에는 인민군 지휘자동화대학을, 2001년 9월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현지도 하여 전자도서관 건설을 지시하는 등 정보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전국을 컴퓨터화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21세기 3대 바보로 담배 피우는 사람, 음악을 즐기지 않는 사람,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꼽을 정도로 인터넷에 관한 관심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3월 11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를 통해 20세기는 기계제 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산업시대라고 강조하고 정보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정보화하는데 중요한 과업을 내세웠다.

2003년 10월 15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를 통해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 할데 대하여”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러시아 방문 당시에도 모스크바로 향하는 특별열차 안에서 인터넷 서핑을 즐겼다고 당시 러시아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리인인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가 밝혔다.²²⁾

2000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 울브라이트에게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1년 1월 중국 방문시에도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즐겼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22) 교토통신, 2001. 8. 1.

더구나 2000년 1월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를 방문해 “세계가 놀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해는 천지개벽했다”고 찬사를 보냈으며 2001년 5월 30일 중국의 실리콘 밸리인 중관촌에 위치한 컴퓨터 제조업체 ‘렌산집단’ 방문에서 IT산업에 대한 관심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특히 북한은 김정일의 통치방식을 주체의 과학정치라고 선전하면서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 걸음 백 걸음으로 과학기술발전에 혁명적 전환을 이룩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과 민족의 부흥과 우리식사회주의의 전도가 달려있다”²³⁾고 강조하고 나섰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 지도부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다. 그들은 이른바 ‘단번도약’ 수단으로서 정보화를 이룩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과 기술이 취약한 현재의 북한 경제 상황에서 프로그램 개발 등 두뇌가 밀받침 된다면 큰 투자 없이도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고 대규모의 외화를 획득하여 파산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IT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IT발전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는 단번 도약론이며, 둘째는 경제발전전략에서의 현실적인 선택이다. 셋째는 IT산업 육성이 결국 북한의 국가 및 사회를 통제하는데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따라서 통치이념의 실천방법으로 도입된 정보화는 정치, 경제, 군사, 사회의 각 분야에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²⁴⁾

23) 로동신문, 1999. 1. 6.

24) 북한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다. 그것은 정치·경제적 분야에서의 대외 인터넷 활용에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내 인터넷 활용은 네트워

① 정치·사회적으로는 정보화를 사회통제 수단 및 체제의 선전도구로 이용하여 왔다.

② 군사적으로는 강력한 군사력 건설과 군의 현대화에 활용하고 있다.

③ 경제적으로는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면서 생산의 효율화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보화를 새로운 경제발전 도구로,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인 ‘광명’은 북한 체제의 선전을 우선적으로 전달하는 체제의 선전도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유롭게 외부 세계와의 인터넷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도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외국의 정보를 차단시키고 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IT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현재는 개인보다 당과 정부기관 중심의 IT기술을 활용하여 외부정보를 획득하고 내부적인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의 채택을 통해서 체제수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²⁵⁾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가와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격차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이념 및 체제 선전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인터넷이란 정보매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한국내부의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각종 게시물²⁶⁾의 게시를

크(인트라넷) 체제 구축 및 활용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25) 박정원, 북한의 IT법제와 남북 IT교류협력의 제도화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19~24면.

통해 북한의 주의, 주장과 다양한 선전 선동의 내용들을 여과 없이 게시하고 이들 사이버공간을 통해 정치적 수단과 구호를 활용하는 선전선동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는 한편 청년학생들을 표적으로 한 치밀한 대남 공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에 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초기에는 IT를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 및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체제선전 및 주체사상 등을 전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상품 판매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경제적 이익수단으로 발전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인터넷에 대해 정보의 직접과 교환이라는 개념보다는 대중적 교양수단 내지 선전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측면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었다.

때문에 정보의 교환과 공개라는 인터넷의 속성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여 북한의 인터넷은 웹과 연관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단순히 중앙의 정보를 하부로 하달 또는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수단으로써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 환경도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경제발전 수단으로서의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26) 북한은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선군정치 및 강성대국론, 연방제 통일, 당위성, 민족공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촉구하면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한편 반미,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내부 네트워크인 인트라넷 부분에 있어서는 당 전문부서, 각 성과 국영기업소, 지방사업소, 시·도 인민위원회 등 행정기관 간의 연계가 활발하게 진행²⁷⁾ 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문, 방송매체 등을 통해 컴퓨터를 비롯한 자동화 등 IT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소개 선전하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컴퓨터 및 인터넷 분야에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등 국가 정보화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2. 북한의 정보화 정책

북한의 정보화 정책은 21세기 산업발전의 추세에 비추어 시대적 조류와 방향을 인식하고 1982년부터 정보과학 및 컴퓨터 기술에 관한 본격적 연구에 착수하였다.

1980년대 중반 정보과학 관련 학과를 설립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 컴퓨터 업무처리 및 문서작성 등을 활용하는 한편 1990년대 후반에는 국가 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정보화 정책²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군사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정보화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첨단장비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유사시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군사적 위협²⁹⁾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자국의 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군사정보

27)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일을 대비한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12. 15~16면.

28) 한국정보화진흥원, 앞의 책, 96~100면.

29)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전 세계 국가 중 미 국방부를 비롯한 미군 인터넷을 가장 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999. 4. 12.

를 획득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목표 달성을 위해 IT기술 및 산업발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왔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및 IT인력 양성,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낙후된 산업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장 및 기업소의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경제난 속에서 느슨해진 정부부문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부문의 정보화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보화의 대중화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동요와 체제불안 요인을 심히 우려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내부적인 네트워크 형성이나 정보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대외정보에 대해서는 내부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등 당국이 필요한 부문만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정책³⁰⁾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 정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1988년 과학기술발전 3단계 계획(1988-1990)을 수립하여 연구 인력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1990년에는 과학기술 중장기계획(1990-2000)을 발표하였다.

또한 조선컴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응용프로그램개발과 IT인재육성, 이공계대학에서 컴퓨터관련 학과를 증설하였으며, 대학 및 국가 주요기관에 정보센터 설립,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1992년에는 통신망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1998-2002)을 수립하였다. 1999년 전자공업성을 신설하였고 2000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정보산업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30) 한국정보화진흥원, 앞의 책, 23~27면.

특히 대국민 홍보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북한 내 인트라망(인트라넷)을 정비하여 웹상에서 언론보도, 자료검색 등이 가능해졌다.

2003년에는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2003-2007)을 수립하였고 리 단위 통신망 현대화를 완료하였다.

2008년부터는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2008-2012)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정책은 군사 분야의 정보화와 사회 분야의 정보화, 경제 분야의 정보화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불균형의 문제를 초래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인터넷을 통해 ‘한민족 7천만의 안전은 북한이 보장한다. 북한의 핵무기는 동족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김정일 지도자 덕분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했다’ 등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전파시키면서 현실사건과 연계하여 감성에 호소하고 안보의식 무력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 네티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우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부 문건들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대남선전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는 등 자체평가를 내리고 이들의 선전선동 활동을 더욱 독려하고 나섰다.

또한 “누구나 주체사상 총서 등의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인터넷 통신상에 게재했다”면서 ‘하루 100페이지 읽기운동’³¹⁾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공공부문의 전산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는 있지만 인프라의 열악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 분야의 정보화에 있어서는 경제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어 왔다.

31) 주임환, 앞의 책, 32면.

①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산업부문의 정보화이다.

김정일은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정보화하여야 합니다.”³²⁾, “21세기 정보산업시대에서는 모든 생산과 경영 활동을 정보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선할 것”³³⁾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전력, 철강, 석유화학, 기계분야 등 선행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공업부문 등 의식주문제 해결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서비스부문까지 정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통신망의 고도화와 컴퓨터 보급을 확대시키면서 산업부문 정보화 재교육 강화, 공장기업소의 정보화 환경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② 사회 분야의 정보화는 사회 전반의 정보화라기보다는 경제의 재건을 위해 컴퓨터 망 구축과 유선전화, 이동전화 보급 등을 통신 인프라 구축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사회 분야의 정보화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③ 군사 분야의 정보화는 부분적이거나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부문도 있을 정도로 정보화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정보화 전략³⁴⁾에 있어서는 김정일이 과학기술중시를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중시의 핵심으로 IT산업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32) 로동신문, 2001. 6. 11.

33) 로동신문, 2001. 8. 12.

34) 한국정보화진흥원, 앞의 책, 96~100면.

제2절 북한의 인터넷 시설 및 운영 현황

1. 인터넷 기반시설 및 인프라 현황

북한의 인터넷 시설과 인프라 현황은 매우 제한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정치, 군사, 경제적 이익 측면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터넷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기관 및 연구소, 학교,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개설하여 운영된다.

대외적으로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연구기관을 북한 내 주요 기관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는 인터넷 연결망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내부 인터넷의 활용은 특수기관을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인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컴퓨터 자체의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외부와의 인터넷은 일부 전략기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주민들에게까지 보급하여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우며 내부적으로는 인트라넷 형태로 운영된다.

더구나 인터넷의 개방과 관련하여 자유민주주의사상의 유입 및 한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로부터 사이버테러의 잠재적 위협을 강하게 느껴 왔다.

때문에 향후 인터넷을 개방하여 확대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관 및 기업체, 학교 등 특정기관에 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통신을 “일정한 수단을 가지고 소식, 보도, 지시

등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유일한 지휘를 보장하는 힘 있는 수단으로서의 나라의 신경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³⁵⁾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은 김정일의 유일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터넷 분야에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도 더욱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이 컴퓨터 개발을 착수한 시점은 1960년대이다. 당시 중국 조선족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전자계산기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1969년에는 진공관을 사용한 ‘진진-5500’ 컴퓨터를 제작하였다.³⁶⁾

1979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제2세대 컴퓨터인 용남산 1호를 제작하였으며 1982년 조총련을 통해 주요 부품을 수입하여 1984년 8bit 개인용 컴퓨터인 봉화 4.1을 조립 생산하였다.

1985년 평양과 함흥에 전자계산기 단과대학을 설립하였고 1986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센터 설치, 평양정보센터(PIC:Pyongyang Informatics Center)의 전신인 평양프로그램개발회사를 발족하였다.

1986년에는 전국과학기술축전을 개최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층 높여 왔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정보화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88년부터 제1, 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0년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1991~2000년)을 발표하였다.

1987년에 UNDP의 원조로 조선과학원 산하 전자공학연구소에 집적회로

35) 고경민, 북한의 IT전략,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79면.

36) 한국은 1973년 전자계산기 세종 1호를 제작하였다. 북한이 진공관을 사용하여 ‘진진-5500’ 컴퓨터를 제작할 당시에는 전자산업기술이 사회주의권에서도 높은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험공장을 완공하였으며, 1988년부터 자체로 16bit 컴퓨터를 제작·생산하고 이를 과학전시관에 전시하였다.

1989년 평양집적회로공장과 해주반도체공장 등 컴퓨터 생산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1989년부터는 전국 청년과학기술전시회를, 1990년부터는 전국프로그램 경연 전시회를 개최하여 왔다.

1990년에 들어서서는 통신망 현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통신선로의 광케이블화, 통신망 중계소의 증설, 수동식 교환기의 자동화기기 교체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1990년 8월 UNDP(유엔개발계획)와의 합의 하에 평양과 함흥, 강원도를 비롯한 평남의 주요 도시 간 통신선 광케이블공사를 추진하였고 1992년 4월 UNDP의 지원으로 평양광케이블공장을 건설하였다.

1993년 평양 대동강유역에 평양컴퓨터조립공장을 설립하였으며 16bit 컴퓨터 및 32bit 컴퓨터를 생산하였다. 이후 486DX급 컴퓨터를 생산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대만, 홍콩, 중국 등의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생산하고 있다.

인터넷은 한국에 비해 2~3년 늦게 도입되었으며 1993년 호주와 시험적으로 인터넷을 연결하였다.

1995년에는 UNDP 평양사무소에서 최초로 외부 세계와 인터넷을 시작하였으며³⁷⁾ 북한 정보를 제공하는 김소프트(www.Kimsoft.com) 사이트를 개설하여 북한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995년 1월 평양-함흥간 300Km 구간의 광케이블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995년 12월에는 함흥-청진-나진-훈춘간 530Km 구간의 광케이블 공사가 완료되었다.

북한은 1996년 2월 발간된 『과학의 세계』를 통해 “과학연구와 국제정

37) 한국일보, 1995. 12. 1.

보통신망-인터넷” , “정보고속도로” 라는 논제의 글에서 인터넷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매우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7년 1월에는 세계통신기구에 공식 가입하였으며, 북한 정부조직의 웹사이트인 조선중앙통신(www.Kcna.co.jp)을 최초로 개설하였다.³⁸⁾

그러나 북한은 인터넷의 직접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중앙통신의 동경지사인 조선뉴스 서비스(Korean News Services)를 통해 공식 인터넷사이트를 일본 동경에 개설한 것이다.³⁹⁾

1997년 조선신보 사이트(www.korea-np.co.jp/korea)를 개설하였고 동년 8월 23일에 자주성사이트(www.Chajsung.com)를, 1998년에는 금강산 국제그룹(www.kugansan.com) 웹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1990년대 초반 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등 주요 기관에 내부 네트워크인 LAN(local area network)를 설치하였으며 1997년 6월부터는 인트라넷 개념의 초보적인 네트워크가 주요기관 간에 구축 운영하여 왔다.

1997년 4월에는 중앙과 지방, 시·도 사이에 빛섬유통신(광통신)과 숫자식 통신망(디지털방식)에 의한 시외전화의 자동화가 실현되었다.

정보화 관련 기관으로는 1988년 평양프로그램개발회사를 평양전자계산기운영회사로 개편하였고 1990년 10월 조선컴퓨터센터, 동년 7월에는 평양정보센터를, 1995년에는 은별컴퓨터기술연구소(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인터넷을 도입하였으나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급하

38) Jung-Yul Cho, "North Korea and the Internet", paper submitted to the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Policy Division, OF the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2000 Convention, Phoenix, AZ.

39) 남성욱, “인터넷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현황”,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1호, 2000. 77면.

기 시작하였다.⁴⁰⁾

그러나 1997년 이전까지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측면에서 군사 분야와 체제 선진적인 측면에 인터넷을 활용하였으며 점차 경제적인 분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북한은 김정일에 의해 컴퓨터 기술의 중요성이 제기되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3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 조선과학원 등의 현지지도를 통해 ‘외국 기술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하여 왔다.

특히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광명’을 개발하고 1995년 1월에는 평양과 함흥간 광케이블공사(300Km) 완료, 1997년 말 평양과 70여개의 시·군 단위에 전화 자동화가 실현되었다.

1998년⁴¹⁾ 이후 북한은 국가 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8년 1월에는 상표법을, 동년 6월에는 발명법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 3월에는 저작권법을, 2003년 6월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을 각각 제정하여 실행하여 왔다.

1998년 2월에는 평양과 신의주를 비롯하여 평안북도 내 16개 시·군 및 3개 노동자구 사이의 400Km 광케이블 공사 및 전자자동화공사를 완료하여 36개 시·군에 광섬유 통신망 시설을 갖추었다. 이와 함께 내부 네트워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1998년 중앙과학기술통보사는 컴퓨터 망인 ‘광명’을 여러 기관·기업소들과 연계시켜 과학기술원 검색체계와 자료통신체계를 구축하였다.

40) 북한은 인터넷의 개방이 체제 안정과 정치권력의 안정화에 심각한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것은 인터넷이 신문·방송 등의 전통적 미디어에 의한 정보의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의도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뉴미디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의 개방은 체제 비우호적인 사상이 범람하거나 체제변화를 원하는 반체제 집단이나 NGO들이 조직적인 전략·전술과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위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체제유지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1) 1998년부터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북한은 인터넷을 국내에서는 대중적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상업적 이익 획득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상품 판매 및 외국관광 등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실용성을 보여 왔다.

특히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체제선전과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세계화와 대중화의 추세에 편승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강력하게 드러내었다.

2000년대 초부터는 상업용 웹사이트의 개설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IT 산업을 경제회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 주민들의 개인적인 정보화 지식이나 활용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개인에게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인터넷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하더라도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외국의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북한 체제선전과 김부자 우상화, 경제 활성화 등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정책을 국내와 해외로 분리하여 대내적으로는 폐쇄성의 정책을 일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와 대중화의 추세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특히 북한은 각급 기관의 전산망 구축과 PC 보급 확대를 위해 신형 컴퓨터와 통신관련 장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터넷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컴퓨터 자체의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다.

1998년에는 중형 서버 13대를, 486급 이상 PC 2,500대와 노트북 225대와 근거리 전산망(LAN)용 기기를 수입한 바 있으며, 1999년에 들어서서는 8월까지 586급 PC 3,800여대 및 노트북 400여대를 도입한데 이어 중국을 통해 미국 컴팩사의 전산망 관리용 중형컴퓨터 200대(총 200여만불)를 수입하였다.

1999년 6월에는 마카오를 통해 컴퓨터 통신을 무선으로 할 수 있는 미국제 컴퓨터 통신장비 1세트를 도입하는 등 전산망 부대장비 확충에도 주력하여 왔다.

<표 2-1> 북한의 정보통신망 건설 현황

시기	주요내용
199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UNDP 광섬유통신 개발사업 합의 평양, 함경북도, 강원도, 평안남도의 주요 도시 광케이블공사 추진
19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양 광케이블공장 건설(UNDP 지원)
199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양-함흥 광케이블공사(300Km) 완료
19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7년 말까지 70여개 시, 군과 단위에 전화자동화실현
19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양-신의주, 신의주-평안북도 내 16개 시·군 및 3개 노동자구간 광섬유허이케이블공사(400Km) 및 자동화공사 완료
19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36개 시·군에 광섬유허이통신망공사 완료
20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안북도 내 제 단계 광케이블공사 완료 도내의 모든 시·군 통신을 현대화

출처 : 조선신보, 2003. 2. 1.

북한의 컴퓨터 대량도입 추진은 북한의 전체 컴퓨터 보급대수가 1999년 말 기준으로 7만 5,000대로 인구 293명당 1대, 남한의 인구 6.3명당 1대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⁴²⁾

전자산업은 1998년 이전까지는 정무원의 전자자동화공업위원회 산하에 두었지만 1998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내각의 금속기계성에서 관할하여 왔다.

1999년 11월에는 내각에 전자공업성을 신설하여 IT를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부문으로 인정하여 IT부문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1999년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을 맞이하여 조선정보망 조선인포뱅크(www.dprkorea.com)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2001년 이메일 서비스사이트인 실리은행(www.silibank.com) 사이트를 중국 심양에 개설하여 외부에서 북한 내부로 이메일 중계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조선영화시리즈 웹사이트(www.tangun.co.jp/moviekr)를 개설하여 북한 영화를 소개 선전하여 왔으며,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 상품판매 사이트인 전자상거래사이트(www.dprkorea-trade.com)를 개설하였다.

2000년부터는 과학기술통보사의 컴퓨터와 정보검색봉사체계를 완성하여 광섬유 케이블에 의한 전화통신망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따라서 개별 컴퓨터 및 기관·기업소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전국적인 통합정보처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00년을 전후 한 시기 586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고 2000년 1월에는 교육성 산하 프로그램 교육지도국을 신설하였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 과학대학을, 평양과 함흥에 컴퓨터공학부와 정보공학강좌, 정보공학과를 신설하는 한편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에 정보센터를 설치하였다.

42) 남성욱, “인터넷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현황”,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1호, 2000. 79면.

2000년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기념하여 전국의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하는 인트라넷을 완료하여 평양을 비롯한 각 도간 광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전국적인 컴퓨터 통신망을 구축⁴³⁾ 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이메일 송·수신과 주요 기관의 홈페이지 활용이 가능해졌다.

2001년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 제1,2고등중학교(현재 중학교) 등에 컴퓨터 수재양성기지를 건설하였으며, 동년 은별컴퓨터기술연구소에서 독립한 626기술봉사소를 중국 심양에 설립되어 북한 최초의 이메일 중계 서비스인 실리은행을 개설하는 한편 동북아전신회사(NEAT&T)를 설립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북한은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정보산업의 요새를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⁴⁴⁾

통신망 현대화 작업은 2000년대 들어서 체신의 현대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이동통신망과 광섬유케이블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과학의 세계』 제3월호의 “인터넷에서 리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와 민주조선 2000년 1월 21일자의 “인터넷이란 한마디로 세계의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한 망으로 많은 봉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인터넷의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2002년 과학원 산하 정보부문 연구소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학교와 집적회로공학교 등을 모체로 정보기술학교를 신설하였으며 동년 11월 생산공장-기업소간 컴퓨터망이 구축되었다.

2003년 5월에는 전국 전력망 컴퓨터체계를 구축하였고 2003년 7월 신의주-평양-해주 신발공장 등에 컨베이어화와 컴퓨터화를, 2003년 9월에

43) 내각, 성, 중앙기관, 공장·기업소를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다.

44) 조선중앙방송, 2001. 4. 22.

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의 컴퓨터망을 구축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기술 및 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리과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교육성 프로그램교육센터들에 ‘조선식의 새로운 조작체계(OS)개발센터’를 설립하였다.

2002년 9월에는 중국의 ‘판다전자집단유한공사’와 북한의 전자제품개발업체인 ‘아침’이 합작하여 ‘아침 판다컴퓨터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연 5,000대 이상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2002년부터 펜티엄-IV급인 ‘아침-판다’ PC를 조립 생산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펜티엄급 컴퓨터를 대량 수입하여 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의 일반 주민들도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능에 따라 컴퓨터 구입비용이 성능에 따라 1,200~2,200 달러이므로 실제적으로는 개인이 구입하기는 매우 어렵다.⁴⁵⁾

2002년 남북합작으로 조선복권합영회사를 설립하였고 복권사이트(www.dklotto.com)와 카지노사이트(www.jupae.com), 바둑사이트(www.mabaduk.com)를 개설하였다.

2002년 말 체신성을 통해 평양-신의주-단둥-베이징-상하이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하였다.

2000년대 중반 평양시 문수동에 1개의 PC방을 개설하여 국제지구 주재원, 언론인, 외교관 등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평양에 있는 유엔기구 및 외국 대사관을 통해 국제 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⁴⁶⁾

45) 한국정보화진흥원, 위의 책, 12~13면.

46) 연합뉴스, 2003. 11. 28.

2003년 3월 25일 영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천리마그룹(www.chollima-group.com)을 개설하였으며, 2005년 10월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전자도서관을 개관하였다.

2006년 전국 모든 도·시·군에 통신망 현대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 말 현재 리 단위까지 통신망 현대화 작업을 완료하였다.⁴⁷⁾

그러나 북한이 개설한 웹 사이트는 해외에 있는 교포 및 교포단체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개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2004년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남북한 정보화 통신 인프라 실태는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표 2-2> 남북한 정보화 통신 인프라 비교

구 분		남한(A)	북한(B)	비교(A/B)
일반 현황	총인구(천명)	48,082	22,709	2.1배
	총면적(제곱Km)	98,400	120,540	0.8배
주요회 선현황	유선 전화	총회선수 (천 회선) 22,920(05)	1,100(04)	약 19배
		100인당 회선수 44.40	4.82	9.2배
기타 현황 (1999)	디지털화(%)	96%(04)	5%(04)	약 19배
	공중전화 (천 회선)	339.3	2.7	125.6배
	FAX 대수 (천 회선수)	400.0	3.0	224.1배
	국제트래픽 (백만분)	694.8	3.1	224.2배

출처 : 통계청, KAIT, ITU Telecommunication Indicators(2004)

2007년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47) 로동신문, 2007. 12. 29.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가 북한의 인터넷 주소관리 기관으로 조선컴퓨터센터(KCC)에 'KP' 도메인 사용권한을 위임하여 북한이 정식으로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을 갖추고 본격적인 'KP' 도메인을 운영해 나가게 되었다.

2008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밝힌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컴퓨터 보급률은 약 12~13만대로 밝혀졌다. 이는 인구 200명당 1대 정도로 한국의 가구당 보급률 80.9%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한국과 비교하여 볼 때 북한의 정보통신분야는 체제유지를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와 시설면에서도 경쟁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에 대해 북한의 과학자나 전문가들이 인터넷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를 북한의 전국민에게 확산시키기에는 많은 시일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96~2006년까지 정보화촉진계획 제1~제3차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최단기간 내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정보화 모델을 마련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경제회생의 방식으로 체제위협을 최소화시키면서 정보기술산업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정보 인프라 현황(PC 보급대수, 인터넷 이용자수, 전화 회선수, 이동전화가입자수 등)은 그 수준이 현격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2-3>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 및 주요 S/W현황

S/W 구분	기술수준(한국과 비교)	주요 S/W 개발현황
워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한글 97 수준과 비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덕 7.5(조선글 편집) • 서광(전자출판) • 단군 4.81(다국어 입력체제)
번역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번역 제품(한국 수준과 비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경봉(조일 번역기) • Post Script(조선글 해석기) • 담징(조일 자동번역)
인식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은 알려진 바와 달리 인식률도 높지 않으며, 한국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남산 5.1(문자인식) • 천지(조선글 음성인식)
C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건축물에 활용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 건축(건축지원) • 산악 3.0(3차원 건축설계)
게임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둑, 장기, 퍼즐 등의 범위에 한정되며, PC게임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바둑(바둑게임) • 류경바둑(바둑게임) • 조선장기(장기게임)
디지털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제선전이 주종, 일반인민 생활분야 및 교육용 콘텐츠가 부족, 사진기술 등도 질이 떨어지며 화면 구성도 평면적 수준, 반면 남한은 교육, 생활, 오락, 영상, 출판 등에 있어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였고, 특히 교육과 게임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명 2003(과학기술대사전) • 생명과 기원(인간 진화과정 소개) • 혁명의 성산 백두산 • 조선의 역사와 민속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앞의 책, 44~45면.

그 이유는 북한지도부가 최신 정보기술 분야의 발달과 보급이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인터넷분야에서는 내부 네트워크인 인트라넷에 치중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및 산업 수준도 한국의 198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은 지도부에서 조차 인터넷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오히려 최신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급이 체제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내부 네트워크인 인트라넷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더구나 컴퓨터⁴⁸⁾는 부족하고 인터넷은 실용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주민들의 활용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정보화 인프라 지수는 2008년 순위에 비해 2010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PC보급지수는 세계 18위, 유선 초고속 지수와 인터넷 이용자수는 세계 10위권을 차지한다.

북한은 인구 200명당 1대 정도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개인용 컴퓨터의 대부분이 486급 이하이다. 펜티엄급의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에는 주요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과 및 연구소에 보급되어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 조차 486 이하의 컴퓨터를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⁴⁹⁾

따라서 정보화 교육의 목표도 컴퓨터 전문지식을 갖춘 핵심 인재 양성에 두고 있으며, 컴퓨터 수재교육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컴퓨터에 대한 지식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48) 2010년 현재 약 10만대의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으며, 연간 3만대의 PC를 생산하고 있다.

49) 김유향, “북한의 정보화 교육”,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경인문화사, 2006. 512면.

<표 2-4> 북한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관

소속	연구소
국가과학원	과학원 컴퓨터연구소, 수학연구소, 응용수학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자동화연구소, 조종기계연구소, 집적회로연구소, 반도체조립공장, 인공지구위성연구소, 로봇연구소 등
중앙당	중앙당 제414 연락소, 제101연락소
성, 중앙기관	조선컴퓨터센터, 인민대학습당,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발명국, 김일성종합대학(컴퓨터연구소, 정보센터, 반도체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자동화연구소 등), 김책공업종합대학(컴퓨터 연구소, 정보센터, 반도체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자동화연구소 등), 리과대학(컴퓨터연구소, 정보센터, 반도체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자동화연구소 등), 평양컴퓨터단과대학연구소, 전자자동화위원회 산하 직속연구소 등, 각도 신설 프로그램정보센터.
공장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강선제강소, 황해제철소, 김책제철소를 비롯한 특급 공장기업소에는 낮은 단계이나 자체의 연구소를 갖고 있으며, 그 안에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장치 개발을 위한 연구실들을 두고 있고 그 밖의 공장기업소들에서는 공장 기술 준비실 규모의 연구시설을 두고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장치개발을 하고 있음.

컴퓨터 교육은 수학, 과학 교사가 재교육을 받아 1년에 약 1개월 정도 윈도우 사용법 등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각종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수학생을 발굴하고는 있으나 컴퓨터 담당교원의 연수가 미

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IT분야의 인력양성은 1990년대 들어서 본격화되었으나 전문교육을 제외한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소양교육을 가르치는 이론적 교육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⁵⁰⁾

2008년까지 추정되는 IT 전문가들은 총 3만 4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매년 1,400여 명의 IT관련 전공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⁵¹⁾

대표적인 인력은 전자요소와 집적회로분야에 1,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국가과학원 산하 7개연구기관인 111호제작소, 집적회로시험공장, 전자재료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자동화연구소, 컴퓨터과학연구소, 조정기계연구소에 배치되어 있다.

전자요소설비설계 분야에는 100여 명의 설계원들이 전자공업성 산하 4개 설계기관인 전자자동화설계사업소, 10월 5일 자동화기구설계사업소, 전자요소설계사업소, 전자설비설계사업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자제품 개발 분야에는 약 1,600여 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전자공업성 산하 전자제품개발회사, 대동강텔레비죤수상기공장, 자동화기구요소공장에 배치되어 있다.

소프트웨어기술부문의 전문가들은 조선컴퓨터센터와 평양정보센터에 900여 명의 프로그램 개발자가 있으며 교육성산하 대학의 5개 정보센터에 400여 명, 지방 정보센터에 약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가과학원 산하 수학연구소, 컴퓨터연구소, 111호제작소, 인공위성 정보연구소 등에 120여 명의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성 및 중앙기관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 200여 명의 프로그램 전문

50) 북한의 정보화 교육은 크게 다섯 가지 형태 즉, 정보기초교육, 정보기술활용교육, 경제정보교육, 전공교육, 소프트웨어 수재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51) 한국정보화진흥원, 앞의 책, 19~21면.

가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문에는 약 140여 명의 전문가들이 정보통신연구소와 망관리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정보기술대학 정보센터에 배치되어 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정책은 인재 양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확대, 소프트웨어 개발기관에 대한 지도와 관리 강화,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주된 방향으로 추진하여 왔다.⁵²⁾

1985년부터는 대학 및 중학교(6학년 한국의 고3년)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는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IT분야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주로 국가과학원, 조선컴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등 연구기관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종합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등 IT 관련 대학들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각 기업소나 지방정보센터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여 왔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수준은 언어처리, 암호화, 인식기술, 애니메이션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 특화하고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대외수요를 중점에 두고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북한 당국의 육성 의지 및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영상처리, 음성인식, 문자인식, 지문인식 등 각종 인식기술에서는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공지능, 퍼지이론 등 각종 제어 및 자동화 시스템에서도 국제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2) 북한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왔다. 1998년에는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시에 153천Km²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연구단지 은정지구를 조성하였다.

이 밖에도 워드프로세서, 한의학 의료정보시스템, 자연어처리시스템, 기계번역, 애니메이션, 게임, 시뮬레이션 등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관련 주요 일지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5> 북한 소프트웨어 관련 주요 일지

시기	추진내용	비고
1983	각 대학의 전자공학부 교육과정 확대개편 과학원과 김책공대에 전자계산연구소 설립	
1986.7	평양정보센터(UNDP지원)	
1990.10	조선컴퓨터센터 설립(9조총련 지원)	
1990.12	제1차 전국컴퓨터프로그램 경연대회	매년 개최
1991.4	김책공대 컴퓨터 요원양성센터 설립	
1992.2	과학기술자료검색 프로그램 광명 개발	
1995	은별컴퓨터 기술무역센터 설립	
1996	창덕 2판 윈도 95용 한글처리프로그램 단군 개발	
1997.5	김일성종합대학 정보센터 설립	
1999	프로그램개발 4개년 계획(1999~2002) 추진	
2000.3	교육성 산하 프로그램지도국 설치	
2001.4	평양에 컴퓨터 수재양성기지 설립	4개소
2002.4	제1회 조선컴퓨터 국제 전시회 개최(북경)	
2002.9	평양정보센터 프로그램 개발실 건립(UNDP 지원)	
2002.11	평양정보센터 프로그램 강습소 개교(연 2,000여명 교육)	
2003.2	신의주에 정보센터 설립	
2003.3	김책공대 전자도서관(S/W 자료 교류 열람실) 건립	
2003.6	강계 산업정보센터 건립 운영	
2003.6	조선컴퓨터센터(S/W 개발중심기관)조직 대폭 확대	상근직원 2,000여명

출처 : 통일연구원, 남북한 IT용어비교, 통일연구원, 2006. 27면.

지금까지 개발된 주요 소프트웨어로는 우리말 OS, 조선글 입력체계, 조선어 문서교정기, 조선글 입력지원체계, 조선문자 인식기, 각종 번역기, 약보인식기, 지문식별기, 인물화상식별기, 체질진단기, 7개 국어사전, 삼흥사전, 교육용대매체들, 은바둑, 조선장기, 조선민속유희뭉음집, 지능씨름, 축구전술지원소프트웨어, 농구전술지원소프트웨어, 은행업무지원체계, 각종경영업무지원체계들, 생산공정감시 및 조종체계들, 금형가공 CAD/CAM, 병진단체계 등이 있다.⁵³⁾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 및 인트라넷 분야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여 정치, 경제적 분야에서의 대외 인터넷 활용은 적극성을 보여왔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인트라넷을 통한 네트워크 체제구축에는 적극성을 보이는 반면에 인터넷 활용은 부정적인 양태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 인터넷 운영 현황

가. 대내 인터넷(인트라넷) 운영 실태

북한은 한국처럼 인터넷을 활용한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외부와의 인터넷 접속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내부적으로는 인트라넷을 통해 각 기관별로 홈페이지⁵⁴⁾를 구축하고 이에 접속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전자우편을 활용하고 있다.

53) 한국정보화진흥원, 앞의 책, 13~15면.

54) 대표적인 홈페이지는 과학기술통보사, 김일성종합대학, 체신성, 6.26기술봉사소, 평양정보센터, 농업과학원, 과학원 은정지구, 무역성, 인민대학습당, 조선만경석암무역회사, 발명국, 조선8.28무역회사,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령봉합작회사(용훈분회사), 조선평원무역회사, 서경무역회사 6과, 조선대흥연유, 료전합영회사 등을 중심으로 1,300여개의 인트라넷 연결망을 통한 북한 전지역에서 이용된다.

국가 범위의 거대한 인트라넷은 체신성 전용망 즉 전화모뎀박스를 통해 각 사이트의 서버로 접속하여 운영된다.⁵⁵⁾

북한 내에서 외부의 인터넷은 국가안전보위부를 비롯한 특수기관 등에 한정하여 정보 수집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외 홍보용 인터넷사이트의 경우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트라넷에 등록되는 홈페이지의 인증은 국가인증기관인 626기술봉사소가 담당한다.

1990년대 초 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주요 기관에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하여 내부 네트워크를 시작하였으며 1997년 6월 UNDP의 지원으로 초보적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였다.

또한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주관하는 컴퓨터망 정보봉사(서비스)를 시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다.

2000년 10월에는 북한 전역을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하는 인트라넷을 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2년 11월부터는 지역별로 운영해 오던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국적 연결망으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⁵⁶⁾

2003년 10월 19일 노동신문은 주요 간부의 가정집에서도 인트라넷을 연결하였다고 선전하였다.⁵⁷⁾

북한은 한국의 인터넷처럼 글로벌사이트의 접속은 불가능하나 내부 인트라넷은 국가범주의 전국적인 컴퓨터 네트워크인 ‘광명’⁵⁸⁾이 구축되

55) 평양과 각 도간에는 광케이블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평양의 전화번호를 이용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트라넷을 통해서도 외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으며 외부에서도 국제전화를 통해 북한의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없다.

56) 현재 평양시내는 1GB급을, 평양과 지방간은 2.5GB의 통신 속도로 전국 어디서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57) 고민경·이희진·장승권, “북한의 IT 딜레마의 이중전략 : 인터넷 정책과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14권 제4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년 겨울호, 147면.

58) 광명은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개발한 과학기술자료 검색 시스템으로 북한의 주요기관, 대학,

어 있다.

‘광명’은 중앙과학 기술통보사(CLAST)에 TCP/IP 방식의 호스트 서버를 두고 일반 전화선을 통해 56Kbps의 속도로 전송되며 1,300여 기관 및 기업소에 연결되어 있다.

총 가입 회원 200만 명 중 ‘광명’ 사이트에만 100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의 과학기술 자료기지는 한국어로 된 민족자료 기지, 외국 잡지자료 기지, 회사자료 기지를 비롯하여 3천만건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과학기술자료의 검색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자료의 DB검색, e-mail 송수신이 가능하다.⁵⁹⁾

전자우편체계(혜성)를 통해서도 과학기술 자료검색 주문 및 번역봉사, 서신거래 봉사, File 전송체계(자료샘)를 통한 File 봉사, 전자소식체계(별무리)를 통한 전자소식 봉사, 사전열람봉사⁶⁰⁾를 할 수 있다.

‘광명’은 WWW 기술과 자체의 자료기지 엔진기술에 기초하여 인터넷과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으며, 웹사이트 구축에 사용된 OS 환경은 Windows 2000을 사용한다.

또한 자료기지검색, 전자우편, 전자소식, 웹사이트검색, 전자도서관, 실시간대화, 전자시장, 오락센터 등 주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광명’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 하여 VAX형 컴퓨터에서 ‘광명’을 개발하였으며 그 후 분산형 컴퓨터망의 기본방식으로 발전시켜 현재는 국가적인 컴퓨터망을 통해 자료기지검색, 전자우편을 비롯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서비스체계

공장·기업소 등 1,300여 기관 및 기업소에 연결되어 있다.

59) 통일연구원, 남북한 인터넷 교류·협력 발전방향, 통일연구원, 2004. 5. 14~15면.

60) 사전열람봉사에는 현대과학 기술용어 20만개가 수록되어 조선어,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 7개 국어로 열람이 가능하다.

를 갖추었다.

최근에는 컴퓨터 보급을 확대시키면서 북한 내 인터넷 홈페이지 수도 크게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인트라넷 ‘광명’의 개발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6> 광명의 개발 과정

연 도	내 용
1992년	• VAX/VMS상에서 자료 검색 체계 CST11 개발
1996년	• 윈도우 환경에서 자료 검색 체계 광명 제1판 출현
1997-1999년	• ISAPI, Java 기술에 기초한 웹 대응, 광명 제2, 3, 4, 5판 출현 • 국가적인 컴퓨터망에 도입하고 과학기술자료 검색 서비스 진행
2000년	• 문헌 정보 검색기술에 RDBMS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자료기지 관리체계 광명 제6판 개발 시작
2001-2003년	• 응용체계 개발에 광범위 이용, 과학기술 검색 체계의 개발과 웹 대응

출처 : 윤요섭, “데이터베이스관리체계 광명에 대한 분석”, 북한과학기술연구 제2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 3. 22면.

조선컴퓨터센터(KCC)는 인트라넷 내나라에 컴퓨터 통신(채팅)이 가능하도록 동시대화방을 개설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2년 4월에는 평양에 PC방⁶¹⁾을 개설하여 해외에 있는 사람이 북한

61) 북한은 컴퓨터이용봉사홀을 개설하여 7개의 봉사홀을 운영하고 있다. 평양지하철 광복역 앞

에 있는 사람과 인터넷상의 각종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거나 전자우편을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일본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북한체제의 선전사이트를 비롯하여 각종 민족, 문화, 제품 및 관광여행 상품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 (주) 훈넷과 같이 남북한이 합작투자 하여 조선북권합영회사(2003.3)를 설립하여 인터넷 북권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의 허가 없이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사용이 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북한에서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사용료에 있어서도 분당 6달러가 소요되는 국제전화 회선을 이용할 경우 E-Mail을 한번 사용하는데 60달러의 비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기관으로는 조선컴퓨터센터(KCC), 은별컴퓨터센터, 평양프로그램센터(PIC), 과학원(Academy of Sciences) 등이 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인민군에 정예의 해킹부대를 조직 운영하면서 한국의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의 정보를 해킹으로 수집하는 등 사이버테러 능력을 강화시켜 왔다.⁶²⁾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해킹 등 사이버 전쟁을 수행할 3만 명의 전문 병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필적하는 것으로 한미양국 정보당국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을 겨냥하여 하루 1만 5천 번이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⁶³⁾

에 있는 첨단기술봉사소 직영봉사홀에는 100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100Mbps의 속도로 전송되며 시간당 이용료는 400원이며 21:0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62) 연합뉴스, 2004. 5. 27.

63) 동아일보, 2011. 5. 19.

‘광명’ 외에도 북한은 ‘붉은 검’ (인민보안부), ‘방패’ (국가보위부), ‘금별’ (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9월부터는 북한 전역의 소학교 3학년부터 영어 및 컴퓨터 과목이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유해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통제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나. 대외 인터넷 운영 실태

북한은 2007년 9월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기구(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를 통해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으로 조선컴퓨터센터(KCC)에 'KP' 도메인 사용 권한을 위임받고 정식으로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을 갖추고 본격적인 'KP' 도메인을 운영하고 있다.⁶⁴⁾

1993년에 호주와 시험적으로 인터넷을 연결하였으며 1995년에는 UNDP 평양사무소에 외부세계와 처음으로 인터넷을 연결하고 북한 정보를 제공하는 김 소프트(Kimsoft.com)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1997년 1월 세계 통신 기구에 가입하였으며 동년 북한 정부 최초의 웹사이트인 조선중앙통신(kcna.co.jp)⁶⁵⁾을 일본에 개설하였다.

1999년 10월 10일에는 중국에 상업용 웹사이트인 조선인포뱅크

64) 2009년 9월 현재 국제인터넷주소위원회(IVANN)는 전 세계적으로 244개의 ccTLD가 있으며 이 중 54개는 도메인 등록업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65) Jung-Yul Cho, "North Korea and the Internet", paper submitted to the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Policy Division, Of the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2000 Convention, Phoenix, AZ.

(dprkorea.com)를 개설⁶⁶⁾하는 한편 조선영화시리즈(www.tangun.co.jp/moviekr) 웹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조선영화시리즈 웹사이트는 일본 아시아영상센터가 북한의 조선영화수출입회사, 목란비디오회사, 조선국제영화제작소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북한 영화 전반에 걸쳐 풍부한 자료를 소개 선전하고 있다.

2001년 3월 25일 인터넷을 공식적으로 이용한다고 공식발표하였고, 동년 5월 말 현재 100여개 기관에 내부 인트라넷(INTRANET)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의 (주)훈넷과 북한의 장생무역총회사가 합영으로 평양에 조선복권합영회사(www.dklotto.com)를 설립하였으며 2001년 9월에는 중국 심양에 실리은행 웹사이트(www.silibank.com)를 개설하여 심양과 평양 사이의 전자우편 봉사를 시작하였다.

메일 전송사이트는 626기술봉사소가 운영하는 실리뱅크(@silibank.com) 사이트와 체신성에서 운영하는 메일사이트(@co.chesin.com)가 있다. 이들 메일전송 사이트를 통해 심양과 평양 서버간에는 종래의 30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실시간 메일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24시간 상시 접촉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은행 홈페이지에서는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메뉴의 구성은 전자우편, 회원정보, 알림, FAQ, 회사소개로 되어 있다.

회원 간 전자우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실리은행에 회원 가

66) 북한은 조선인포뱅크를 통해 가입비 포함 연간 유료 회원제 2,000달러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회원유치에 실패하였고 2000년 7월에는 1,200달러로 회비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고가의 유료 회원제에서 탈피하여 배너 광고, 문화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영화관련 사이트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입을 하고 북한에서 실리은행 대응기관의 회원이 된다면 회원 간의 전자우편을 교환할 수 있다.

전자우편의 사용료는 3개월분을 선납해야 하며 예상 통신비가 실제 통신비와 계산하여 잔고가 없을 때에는 서비스를 중단조치 하고 있다. 서비스 개시 당시 문서로 된 E-mail은 건당 \$ 1.5를, 8MB 용량의 사진 전송은 \$300정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2003년 5월 10일 전자우편 용량에 따른 계산비용을 변경하여 신설의 경우 300MB 이하는 요금을 약간 인상하는 반면 300MB 이상은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⁶⁷⁾

현재 실리은행 서비스는 중국 심양의 서버와 북한 평양의 서버 간 교신 간격을 종래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였으며 향후 24시간 상시 접속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10월 5일 현재 북한은 전지역 1,300여 기관으로 내부 인터넷 구축을 완료하였다.

2002년 8월 15일에는 2개의 인터넷 사이트(www.mybaduk.com, www.jupae.com)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1월 29일 본 사이트는 차단되어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2003년 1월 7일 독일(KCC)과 상업용 인터넷 추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년 7월 13일 kp를 사용한 과학기술전시관 사이트를 개설하였다.⁶⁸⁾

2003년 10월 1일 북한 전지역(200여 시·군)에 광케이블망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2월 16일 KCC유럽-KCC간 위성을 이용한 국제 전용 통신망을 개설하고 E-mail 및 외부 인터넷 검색 기능을 갖추었다. 이들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는 해외에 있는 친북단체 및 해외동포를 중심으로

67) 연합뉴스, 2003. 7. 10.

68) 2003년 9월 19일 무역성 부상은 국제 인터넷과의 접속은 북한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광대역 시스템(차단기술)을 구축한 후 접속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개설 운영하면서 북한 체제 선전, 조선중앙통신 뉴스 및 노동신문의 주요 기사를 비롯한 정보제공과 무역, 관광, 비즈니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1년 3월 7일 현재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총 18개 국가에 120여개소로 파악되었다. 이 중 미국 49개, 일본 26개, 중국 18개, 독일 4개, 북한 5개, 캐나다 2개, 스페인 2개, 태국 2개, 호주 1개, 네덜란드 1개, 체코 1개, 덴마크 1개, 뉴질랜드 1개, 핀란드 1개, 폴란드 1개, 러시아 1개, 영국 1개, 프랑스 1개소로 밝혀졌다.

제3장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실태

제1절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현황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는 2011년 5월 31일 현재 1,00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북한 직영 및 해외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는 120여개로 2008년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76개의 해외 친북사이트에 비해 44개 사이트가 증가하였다.

해외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는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18개 국가에 분포되어 있으며 3월 7일 현재 74개의 사이트가 차단⁶⁹⁾되어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49개, 일본 26개, 중국 18개, 독일 4개, 북한 5개, 캐나다 2개, 스페인 2개, 태국 2개, 호주 1개, 네덜란드 1개, 체코 1개, 덴마크 1개, 뉴질랜드 1개, 핀란드 1개, 폴란드 1개, 러시아 1개, 영국 1개, 프랑스 1개소로 나타났다.

국내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는 840여개로 이중 사회 분야가 600여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노동 분야 170여개, 학원 분야는 100여개로 밝혀졌다.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현황(북한 직영 및 해외, 국내)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9)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는 2004년 11월 정보통신부가 경찰청의 의뢰를 받고 주요사이트를 차단한 이후 지속적인 차단 조치를 강구하여 왔다. 그러나 구국전선, 백두넷, 민족통신을 비롯한 주요사이트에서는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하여 접속을 유도하여 왔고 일부사이트에서는 우회접속 방법을 게재하여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표 3-1> 차단된 해외 친북사이트 현황

연번	사이트	연번	사이트
1	구국전선 1, 2, 3	38	우리민족끼리
2	코리아북센터	39	백두넷
3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40	려명
4	조국평화통일협회	41	민족통신(투데이)
5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42	광명사
6	겨레사랑터	43	류경
7	코리아네트워크	44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8	조선음악	45	평화통신
9	조선대학교	46	조선메디아주식회사
10	조선신보	47	6.15실천 우리민족끼리
11	민족민주대학	48	재중조선인총연합회
12	조선통신	49	민족통신(media)
13	조국통일을 논하는 홈페이지(모약산)	50	민족통신(174.36.108.248)
14	조선인포뱅크	51	민족통신(69.65.10.232)
15	우리민족끼리	52	웹우리동포
16	실리은행	53	선군도서관
17	조선우표	54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18	조선출판물	55	조선도서
19	화려은행	56	김정일 박물관 1
20	김일성방승대학	57	김정일 박물관 2
21	자주평화민족대단결	58	김정일 박물관 3
22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59	김정일
23	민족통신	60	재일본조선청년동맹
24	통일학연구소 1,2,3	61	재중조선인총연합회(백두-하나)1
25	백두넷 1, 2	62	willow200man
26	조국통일 21	63	willow200man(wordpress)
27	조선의 노래	64	willow200man(mobile)
28	내나라	65	재중조선인총연합회(백두-한라)2
29	재독일동포협력회	66	내나라(175.45.179.68)
30	범민련공동사무국	67	내나라(KP)
31	조선북권	68	조선중앙통신(175.45.179.68)
32	고려바둑	69	willow200man(office)
33	주패사이트	70	프랑스 조선친선협회
34	주체사상국제연구소	71	조선통신(today)
35	조선우호협회	72	조선통신(58.137.35.164)
36	선군정치연구소조 1	73	조선중앙통신(kcna)
37	선진정치연구소조 2	74	조선중앙통신(175.45.176.58)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2011. 3. 7일 현재)

<표 3-2> 차단되지 않은 해외 친북사이트 현황

연번	차단되지 않은 사이트	연번	차단되지 않은 사이트
1	김정일 넷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폴란드)
2	북한여행	24	고려종합무역상사
3	애국의길	25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계
4	조선관광	26	조선인포
5	백두산	27	kimchenry
6	평양정보센터	28	주체코리아 온라인(DPRK)
7	주체코리아(DPRK)	29	DPRK-North Korea
8	평양미술관	30	DPRKorea-Trade
9	조선부강회사	31	juche007
10	에루화네트워크	32	juche kdv
11	고려여행	33	KPM(조선언론정보기지)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North Korea)	34	NDFSK를 지원하는 미국단결위원회
13	사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연구실	35	NACAZA1
14	대동연구소	36	Red Banner of Songun
15	선군포럼	37	NORTH KOREA BOOKS
16	선군블로그	38	DPRK Database
17	자주코리아	39	Songunblog
18	재미자주사상연구소2(자주사 랑)	40	Images of North Korea
19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41	Study of JucheIdea
20	천리마	42	NorthkoreaTour
2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43	Juche(주체)
22	진정한 주체 현재의 선군	44	Nordkorea Information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2011. 3. 7일 현재)

북한 직영 및 해외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는 2004년 44개 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52개, 2006년에는 64개, 2007년에는 73개, 2008년에는 82개, 2009년 92개, 2010년 108개, 2011년 5월 31일 현재 121여개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현재 인터넷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시공간을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존의 모든 매스미디어가 제공하였던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 방송, 라디오와 같은 타 매체의 메시지들을 공유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과 타 매체의 차별성을 지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3> 인터넷과 타매체의 차별성

구분	인터넷	신문	방송
메시지 제한성	시공간적 무제한	공간적 제한	시간적 제한
타깃 선별성	높음(특정 다수)	낮음 (불특정 다수)	낮음 (불특정 다수)
커뮤니케이션 형태	쌍방적	일방적	일방적
제공정보 분량	무제한적	약간 제한적	제한적
발전 가능성	발전기	쇠퇴기	성숙기
수용자 태도	능동적	수동적	수동적
효과 단계	행동구매단계	태도변용	인지도 향상
비용	낮음	높음	가장 높음
메시지 가변성	높음	낮음	아주 낮음
메시지 전달시의성	높음	약간 낮음	아주 낮음
메시지 도달성	높음	넓음	아주 넓음

출처 : 박성호, 인터넷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참조.

<표 3-4> 국내 지역·분야별 친북사이트 현황

지역별	인터넷사이트			총계
	노동	사회	학원	
서울	26	71	27	124
부산	10	40	17	67
대구	10	26	1	37
인천	7	58	3	68
광주	11	39	4	54
대전	10	24	3	37
울산	17	20	6	43
경기	8	67	10	85
강원	2	41	2	45
충북	8	19	4	31
충남	10	29	7	46
전북	10	34	5	49
전남	21	31	6	58
경북	5	25	2	32
경남	6	32	3	41
제주	4	9	1	14
공통	2	5	2	9
계	167	570	103	840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2011. 3. 7일 현재)

지역별로는 서울 124개, 경기 85개, 인천 68개, 부산 67개, 전남 58

개, 광주 54개, 전북 49개, 충남 46개, 강원 45개, 울산 43개, 경남 41개, 대전 37개, 대구 37개, 경북 32개, 충북 31개, 제주 14개, 기타 9개로 나타났다.

제2절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운영 실태

1. 운영 주체 및 성격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이념적인 사이트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이트이다.

<표 3-5>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운영주체 및 주요내용

사이트명	인터넷주소	운영주체	개설지	주요 내용
구국전선	ndfk.dyndns.org	한국민족민주전선	일본	· 대남 비방선전, 한국어 · 백두넷(주체일지)연결
조선신보	www.korea-np.co.jp	조선신보사 (조총련통신기관지)	일본	· 1997.2.14 개설 · 한국어, 영어, 일본어
범민련	www.bommin.org	조국통일범민족연 합	일본	· 서울, 평양, 도표
민족통신	www.minjok.com	민족통신 운영위원회	미국	· 한국어, 영어 · 민족논단, 민족성명서
통일학 연구소	www.onekorea.org	미주평화통일 연구소	미국	· 조국통일문제, 한국어 · 미국의 한반도 정책
우리민족 끼리	uriminzokkri.com	silibank	중국	· 사상과 이념선전, 한국어 · 신문잡지 게재, 동영상 등
조선인포 뱅크	www.dprkorea.com	범태평양 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협회	중국	· 1999.10.13 개설 · 2003. 2 잠정폐쇄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조선통신	www.kcna.co.jp	조선통신사 (도쿄)	일본	· 1997.1.10 개설 ·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기사제공 · 한국어, 영어
고려바둑	mtbaduk.com	조선북권합영회사(남북합영회사)		· 조선바둑뉴스, 남북합영 · 조선관광, Q&A게시판
KFA	korea-dpr.com	조선친선협회	스페인	· 스페인 친북단체 · 영어 등 5개 국어
주체사상	www.cnet-ta.ne.jp/ juche/defaulte.htm	국제주체사상 연구소	일본	· 일, 영, 불, 스페인어

최초 북한은 체제 이념선전을 중심으로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여 왔으나 점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더구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의 주요 내용과 특징

대표적인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로 구국전선, 조선신보, 우리민족끼리, 대동연구소, 한총련, 민주노총 서울본부, 자주민보를 선정하여 이들 사이트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가. 구국전선(ndfsk.dyndns.org)

구국전선은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반제민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이다.⁷⁰⁾

일본 측 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며 반제민전 신년메시지를 비롯하여 한국 내 주요사건 및 시기별 대남투쟁의 방침과 투쟁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한국어를 사용하며 지난 기사에 대해서는 영문으로도 볼 수 있다. 두 개의 홈페이지 <http://ndfsk.dyndns.org>와 <http://aindf.dyndns.org>와 이메일 ndfsk@celery.ocn.ne.jp와 aindf@celery.ocn.ne.jp을 사용한다.

반제민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남한혁명을 위한 당면 3대 투쟁목표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투쟁을 수행하

70) 반제민전은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혁명 진위조직으로 1969년 8월 25일 창당한 통일혁명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85년 7월 27일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하였고 2005년 3월 23일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는 북한의 애국적 전위대이다.”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혁명 전위대로 한국 내에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사파 운동세력들은 반제민전을 남한혁명의 애국적 전위대로 받들면서 국내 좌익조직의 상급 조직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매시기 반제민전이 지령하는 투쟁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여 투쟁하고 있는 실정이다.⁷¹⁾

중앙위원회 산하 해외지부(일본·쿠바·베트남·시리아·평양·마다스칼대표부)와 각 도당위원회(각 시·군당위원회, 외각단체), 외곽단체(민족해방전선, 조국해방전선)를 두고 있다.

중앙위원회 직속으로는 대변인, 선전국, 청년학생국, 노동국, 종교국, 상공인국, 부녀국과 구국의소리방송(지하방송), 청맥(기관잡지), 혁명전선(기관지)이 있다.

홈페이지 초시 화면 상단에는 “구국전선은 한국 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의 홈페이지이며,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각계 애국민중과 생사를 함께하며 적극 투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요 메뉴는 ‘우리의 주장’, ‘자주, 민주, 통일의 광장’, ‘절세의 위인상’, ‘주체사상 학습실’, ‘문예’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동영상/사진/음악 hwp파일 자료모음’, ‘각종 CD 내려 받기’, ‘기타자료’, ‘인터넷 구국의소리’, ‘통일여명(HTM)’, ‘통일여명(HWP)’, ‘월간백서’, ‘6.15주간’, ‘백두산 통일아리랑’, ‘세기와 더불어’, ‘인터넷 백두산’, ‘인터넷 회고록 강좌’, ‘인터넷 회고록 강좌2’, ‘인터넷 청년사상 강좌’, ‘인터넷 위대성 강좌’, ‘인터넷 통일혁명론 강좌’, ‘인터넷 당건설론 특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71)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1999. 1009~1010면.

① ‘우리의 주장’ 에는 반제민전 대변인의 일별 논평을 게재하였다.

② ‘자주, 민주, 통일의 광장’ 에서는 김정일의 현지 지도와 조국통일 연구원 백서, 조선인민군 관문점대표부성명, 변혁과 진보에 관한 한호석의 논문을 비롯하여 반미, 반전, 반제,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자료들을 게재하고 있다.

③ ‘절세의 위인상’ 에서는 선군정치가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이며, 반제자주의 정치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선군정치의 혁명원리,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의 관계, 선군사상의 창시 등 김정일 선군정치의 당위성과 위대성 등을 찬양선동 하였다.

④ ‘주체사상 학습실’ 에서는 김정일의 저작 “북과 남의 여성들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게재하고 이를 소개 선전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⑤ ‘문예’ 에서는 ‘시’, ‘장편소설’, ‘삶의노래’, ‘민속’ 등의 자료를 소개 선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료에는 시 “나는 노동자의 아들이다”, 장편소설 “전환,” “라남의 열풍”, “전선의 아침”, “서해전역” 등과 그림책 “풍산과 진도” 를 비롯한 삶의 노래, 조선의 사계절 민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세기와 더불어’ 를 통해 김일성 자서전을 소개 선전 하였다.

‘인터넷 청년사상 강좌’ 에서는 주체사상과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민족과 철학, 현대조선역사, 주체의 정치경제학 개론 등을 게재하였다. 더구나 한국의 청년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일성주의 이념 학습을 체계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국전선 홈페이지는 북한의 주의, 주장을 대변 하면서 한국 내 친북성향의 운동권 단체들의 행동강령과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있는 선전선동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종 유언비어를 조작 유포하면서 반미,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남한혁명을 목표로 선전선동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조선신보(www.korea-np.co.jp)

조선신보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위원회 기관지이다.

북한 및 조총련의 뉴스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 수행하여 왔으며 관리자 메일 주소는 webmaster@korea-np.co.jp을 사용한다.

조선신보사는 1945년 10월 10일 민중 신문으로 출발하여 동년 9월 해방신문으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1월 조선신보로 다시 명칭을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산하에는 편집국·경영국·총무실을 두고 있다. 편집국은 정치부, 문화부, 기획부, 사진부, 편성교정부, 동포생활부, 인터넷부로 편제되어 있다.

1997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 신문으로서 북한과 조총련 뉴스를 전파하는 등 북한체제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친북 반한적인 담화나 논평을 통해 반미,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혁명의 당위성을 피력하여 왔다.

일본측 서버를 사용하며 한국어, 일어, 영어를 사용한다.

주요 메뉴는 ‘조국소식’, ‘총련활동’, ‘동포생활’, ‘대외’, ‘문화’, ‘체육’, ‘민족교육’, ‘시론’, ‘메아리’, ‘비디오레포트’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기사서비스’, ‘DPRK뉴스’, ‘기획특집’, ‘문

의 및 안내’, ‘조선사회과학학술집’, ‘주요뉴스’, ‘지역소식’, ‘조선통신사’, ‘여성동맹’, ‘상공연합회’, ‘류학생동맹’, ‘통일평론’ 등 20여개의 메뉴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주요뉴스’에는 김정일의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종업원 및 가스화건설자들에게 보낸 친필 서신을 비롯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 예하 공장 시찰, 최고인민회의 소집, 동일본대지진 소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소식으로는 총련 산하 지역 활동 소식을 전하고 있다. 북한의 소식 및 김정일의 근황을 자세하게 소개 선전하면서 조총련 활동을 비롯한 조총련 산하 기관들의 근황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신보의 기사내용을 주로 소개하면서 조선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협회, 북남조선음악집, 조선관광안내, 조선영화소개, 통일학연구소, 민족통신 사이트 등과 연결되어 있다.

다.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이다.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어를 사용하며, 관리자 메일주소는 uriminzokkiri@silibank.com 이다

홈페이지 주요 메뉴는 ‘주요기사’, (통신, 신문, 잡지, 영화, 음악), ‘독자투고’, ‘상품봉사’, ‘게임’, ‘사설’, ‘론설’, ‘정론’, ‘론평’, ‘고발장’, ‘비망록’, ‘성토문’, ‘격문’, ‘전자우편’, ‘로그인’, ‘회원가입’, ‘홈페이지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백두산 3대장군’, ‘선군장정의 길’,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회상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시사해

설’, ‘시사카메라 초점’, ‘인터넷로본 남조선민심’, ‘타매체’, ‘사진’, ‘조선료리백과’, ‘도서’, ‘조선명곡’, ‘독자투고’, ‘상식’, ‘추천사이트’ (우리민족 강당, 류경, 려명, 내나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의 주요기사를 소개 선전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투쟁업적, 선군정치의 당위성 등을 피력하면서 신문, 방송, 통신, 잡지 등의 다양한 사설, 논평, 성명, 기사 내용을 비롯하여 주요 논문, 회고록, 주체사상 등을 통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고 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와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 북한사회를 찬양선전 하는 내용과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비방선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다양한 영상물들을 통해 한국 청년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영화를 비롯한 전통의상, 관광지, 서적, 음악 등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광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메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백두산 3대장군’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을 백두산 3대장군으로 부각시키고 이를 찬양선동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군장정의 길’에서는 선군은 자주이며 민족의 존엄이고 위용임을 강조하면서 선군정치를 항구적인 정치방식이라고 소개 선전하였다.

‘회고록’에서는 김일성의 자서전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통해 김일성의 일대기와 항일무장투쟁의 당위성 등을 선전선동 하였다.

‘통일은 우리민족끼리’에서는 조국통일 3대헌장, 6.15공동선언,

10.4선을 소개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사해설’에서는 현정권을 역적패당 운운하면서 남한 당국이 비열한 귀순공작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방선전 하는 한편 북한 주민 31명 전원을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였다.

‘인터넷으로 본 남조선민심’에서는 한국사회의 국론분열을 조장하면서 반미,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본 사이트는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운영하는 대남심리전기관의 사이트로 2007년 9월 말 현재 정부당국에 의해 불법 사이트로 판명되어 접속이 차단되어 있다.

라. 대동연구소(www.daedong615.com)

대동연구소⁷²⁾는 2005년 6월 15일 일본 동경에 설립한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이다.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로 삼고 북한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주의, 주장 등을 대변하는 선전선동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는 ‘연구소 소개’, ‘논문’, ‘기고글’, ‘자료실’, ‘대동칼럼’, ‘관련사이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리자 주소는 info@daedong615.com을 사용한다.

‘논문’에서는 “21세기 우리민족의 과제로서의 민족관의 통일”, “민족자주이념연구”, “북의 미사일발사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민족끼리의 현재적 의미” 등 27개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는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

72) 대동연구소는 현재 소장으로 있는 강민화가 중심이 되어 대동여지도처럼 한반도에서 38선을 없애고 하나의 조국을 만들기 위해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로 지침으로 삼고 거족적 통일운동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설립한 연구소이다.

자” 논제(20005.8.15)의 글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란 우리 민족 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우리 민족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에 맞게 그리고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국통일이란 본질에 있어서 조선반도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재결합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임을 주장하였다.

더구나 우리 민족끼리 회피론자들이 우리 민족끼리에 대해 북측의 생존전략에 끌려가고 있다고 친북론, 배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강변하고 있다.

첫째는 2000년 6월 남북한 수뇌들에 의해 발표된 공동선언 제1항의 명기 사항을 반대 또는 회피하려는 자기중심적 자세와 비과학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며 그를 위해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 교류·협력을 촉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새 시대 6.15시대에 와서도 구태의연하게 친북, 친남을 가르려는 구시대적 냉전적 사고방식을 고집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셋째는 열린 자주이니 비배타적 자주이니 하는 주장에 숨어 있는 그들의 뿌리 깊은 외세 의존적 자세에 있다고 주장⁷³⁾ 하면서 국제적인 연대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6.15공동선언의 최종목표 중착점을 향하여” (강민화, 2005.11.1)에서는 6.15공동선언이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그 본질은

73) <http://www.daedong615.com/nonmun/nonmun050815.htm>. 2011. 3. 21.

민족자주선언, 평화통일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최종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6.15공동선언이 전민족적 통일강령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해야 한다.

둘째, 6.15통일세력을 장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을 가로 막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켜야 한다.

넷째, 6.15통일시대에 와서까지 동족인 이북을 적대시하거나 이남의 통일운동을 불법시하고 탄압하는 일이 하루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⁷⁴⁾고 피력하였다.

‘기고 글’에는 “조선로동당은 어떠한 당인가”, “분파와 파쟁이 진보운동에 남긴 역사적 교훈”, “강성대국건설의 현주소”, “진보정치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희망” 등 8개의 기고글을 게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어떠한 당인가”(김현환 :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2005.10.1)에서는 조선로동당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며,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당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풀어나가는 당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또한 사상개조사업을 통한 인간개조를 앞세우는 사람과의 사업을 선행시켜 조선로동당은 민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인민민주주의의 독재를 강화하면서 변혁을 계속 전진시켜 나가는 당이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당 건설과 그 활동에 있어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당이며, 제국주의연합세력과 온갖 형태의 지배주의 세력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나라들과 제3세계 나라들의 민중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면서 세계혁명의 종국적

74) <http://www.daedong615.com/nonmun/nonmun051101.htm>. 2011. 3. 21.

승리를 위하여 계속 혁명을 하는 당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노동신문을 읽을 때마다 수령, 당, 대중, 군대가 하나의 일심 단결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어 철통같이 뭉친 나라를 보고 이러한 나라도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생각하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조그마한 나라의 핵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무력으로 진압하지 못하고 세계의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모여 6자회담을 한다고 범석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북은 대단한 나라이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핵심부대인 조선로동당은 대단한 당⁷⁵⁾ 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재일동포 사회과학자 한동성의 2010년 3월 23일 기고 글 “강성대국건설의 현주소”에서는 현재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놓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기에 들어섰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2012년을 지향하는 역사적 구간의 둘째 해인 지난해에 투쟁을 통해 강성대국건설사에서 분수령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주체 철 생산 체계의 완성과 CNC의 첨단돌파와 같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사변들이 연이어 일어났으며 나라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상승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둘째, 2012년 구상의 시간표에 따라 올해부터는 종당 목표달성을 위한 총공세로 넘어가 대도조의 성과가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차려지게 하려는 정책적 의지라고 주장한다.

셋째, 경제건설과 더불어 조국통일 및 대외관계에서도 자주와 선군의 위력에 의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75) <http://www.daedong615.com/nonmun/kigo051001.htm>. 2011. 3. 21.

<표 3-6> 대동연구소 관련 사이트

분야	한국	북한	해외
학술연구	새세상연구소 세종연구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외교안보연구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우리민족강당	통일학연구소(재미)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재미)
통일	통일 맛이 늦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통일부		통일한마음(재일 조국평 화통일협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구국전선
정당단체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전선	려명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한통련 재일대한민국민단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인터넷 언론	통일뉴스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 자주민보 프레시안 시사IN 통일언론	우리민족끼리	연방COREA21 민족통신(재미)
일반 언론	한겨레 경향신문 조선일보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재일조선 통신사)	조선신보(재일) 통일평론(재일-일본)

더구나 북한이 강성대국을 향해 역사의 분수령을 지나 직선주로에 들

어서 2012년 구상 실현을 위한 전면공세로 넘어갔다는데 강성대국건설의 현주소가 있다⁷⁶⁾고 주장 하였다.

‘시평 · 해설’에서는 “이남의 민노당사태”, “재일동포들도 우려한다”, “6.15와 10.4에 대한 도전을 우리 민족끼리 힘으로 짓부셔버리자”, “인공위성 광명성 2호와 탄도미사일 대포동” 등 9개의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6.15와 10.4에 대한 도전을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짓부셔버리자”를 통해 현 정부가 과거 군사정권조차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한반도의 분단고착화를 피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또한 반통일 반북론자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운동을 주도해 나갈 것과 6.15와 10.4에 대한 온갖 도전을 짓부셔버리고 이를 철저히 고수 이행해 나갈 것⁷⁷⁾을 촉구 하고 나섰다.

‘리포트’에서는 “가을 행사의 여운이 남아 있는 평양”을 담고 있고, ‘대담 · 강연’에서는 “재일동포 새 세대와 조국통일”, “조선반도에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 다극화와 조국통일” 등 19개의 자료를 게재 선전하였다.

마. 한총련(hcy.jinbo.net)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국내 최대의 학생운동단체이다.

1993년 5월 27일 전국 186개 대학이 가입하여 공식 출범하였다.⁷⁸⁾ 출

76) <http://www.daedong615.com/nonmun/kigo100323.htm>. 2011. 3. 21.

77) <http://www.daedong615.com/nonmun/shipyong080305.htm>. 2011. 3. 21.

78) 한총련은 대표자인 의장과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 상임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 상설의결기관인 중앙상임위원회를 두고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중앙조직은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체제로 되어 있다. 의장 산하 특별기구,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별 기구에는 조통위, 학자추위, 대변인을 두고 있으

범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의 주의, 주장에 편승하여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용하고 동조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하에서는 한총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내용을 분석 검토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한총련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의 게시 내용물들을 원문 그대로 수정 없이 그대로 게시하고 있다.

2011년 3월 18일자 한총련 자유게시판에 올려놓은 북한 관련 게시물은 총 34개로 파악되었다.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2011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 사이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고 있다. 이 중 노동신문 기사 26개, 우리민족끼리 5개, 조선신보 1개, 조선중앙통신 1개의 소식을 수정 없이 게시하고 이를 소개 선전하였다.

노동신문 자료 중에는 선군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공장을 시찰하시였다”(로동신문 3.17), “남조선당국의 진정성 타령을 평함”(로동신문 논평 3. 17), “조국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로동신문 3.16), “혁명일화 승리의 포대”(로동신문, 3. 14) 등 논제의 기사를 담고 있다.

또한 “대화와 전쟁책동은 량립될 수 없다”(우리민족끼리 논설 3.16)을 비롯하여 “90일 운동을 총공세로 벌려 총련지부를 거점으로 새 전성

며,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책위, 조직위, 연대사업위, 문화국, 교육선전국, 투쟁국, 전문대사업국, 사무처를 두고 있다. 지방조직으로는 한총련 산하 8개 지역총련(서총련, 경인총련, 강총련, 충청총련, 전북총련, 남총련, 대경총련, 부경총련, 제총협)·1개 특별지구 및 25개 지구 총련·총학생회·단대학생회·과학생회로 구성되어 있다. 송경호, On-Off라인상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실태 전망, 2009 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09, 53면.

기의 모양새를 갖추자”(조선신보 3.16), “핵무기철폐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조선중앙통신 3. 15) 등 논제의 기사 내용을 선전하였다.

더구나 반제민전의 2010년 7.23 구국전선 시국선언문을 게재하고 있다. 반제민전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시국이 시대착오적인 반역정책을 추구하는 이명박 패당에게 중국적 파멸을 선고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①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 정책을 결사반대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 ② 이명박 정권의 친미사대매국행위를 추호도 용납지 말자,
- ③ 이명박 정권의 동족대결과 전쟁책동반대투쟁에 총력기하자,
- ④ 7.27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한번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
- ⑤ 반이명박 투쟁의 구호 밑에 단결하고 또 단결할 것⁷⁹⁾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선전선동 하고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총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들의 주요 내용들은 대한민국의 현 정부를 부정하고, 한국사회의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내용과 북한의 주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내용,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우상화 하고 북한의 통일방안 등을 정당화하는 내용, 반미,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바. 민주노총 서울본부(seoul.nodong.org)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한국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진보적 노동운동단체인 민주노총의 핵심조직이다.

이하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내용으로 한

79) <http://hcy.jinbo.net>. 2011.1. 31.

정하고자 한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11년 2월 10일 현재 총 9,696건의 게시물을 게재하였으며 게시물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 김정일위원장 알기’에서는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논제의 원전을 게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선의 통일은 우리 민족내부의 문제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이익을 앞에 놓고 온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을 미싸일이라고 떠드는 것은 북한을 압살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비굴하게 머리 숙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⁸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는 김일성이 한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조국통일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았다고 주장하면서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노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노선이며 애국애족의 노선이라고 강조하였다.

더구나 김일성이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안팎의 분열주의세력들의 반통일책종이 계속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시종일관 통일노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조국통일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국통일 3대헌장(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 모두가 받들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외세에 의존하고 외

80) http://seoul.nodong.org/bbs/skin/ggambo7002_board/pnint.php?id=se_free&no=16078. 2011. 1. 31.

세에 공조할 것이 아니라 민족 자주의 입장에서 동족과 힘을 합쳐 외세를 배격하고 반통일적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협상할 것과 7천만겨레가 김일성의 통일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을 전개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갈 것⁸¹⁾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에서는 어떤 일들이” 논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종합하여 게재하고 있는 내용이다.

2010년 12월 22일 현재 김정일의 공개 활동은 158차에 달하며 이중 111개 경제단위를 현지지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 사태 이후 미국과 현 정부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포사격훈련을 강행하여 북을 군사적으로 자극하고 전쟁도발구실을 유도하려 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북의 인내와 자제에 의해 한반도는 간신히 핵전쟁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강성대국건설 목표 시한인 2012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주장하였다.

더구나 북이 세계적 정치원로이며 선군 영장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 공식화 이후 한국에 대한 초강경대응과 북의 승리를 이끌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북의 김정일 영도 하에 2011년 강성대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찬양 선동 하고 있다.⁸²⁾

‘북 후계자 논쟁’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반북세력들이 주장하는 세습제 주장은 북한 주민 모욕죄라고 강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

81) http://seoul.nodong.org/bbs/skin/ggambo7002_board/pnint.php?id=se_free&no=16077. 2011. 1. 31.

82) http://seoul.nodong.org/bbs/skin/ggambo7002_board/pnint.php?id=se_free&no=15652. 2011. 1. 11.

다.

지금 북한의 민중들은 후계자를 김일성주석의 청년장군시기처럼 열렬히 환영하고 따르고 받들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세계 언론에 생중계된 북의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미국의 핵 위협과 유엔의 제재라는 이중 삼중의 난관 속에서도 강성대국 건설과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으며 김일성이 조국해방을 이뤄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건설을 이뤄내게 될 것이며, 김정은 부위원장은 조국통일을 이뤄내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북한이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이 허무한 세습 시비가 아니라 북 후계자의 번개 같은 선군정치에 어떻게 대응하여 합류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다.⁸³⁾

‘항일전쟁사 스토리-한 홉의 미숫가루’에서는 민족의 식민지 과거사,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서 김일성항일전쟁사가 가장 대표적 자리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일성을 민족의 전설적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의 가장 간고하였던 1938년 12월 초부터 100일 동안 몽강에서 장백지구로 향한 행군에서 일제 토벌대와 항공대의 연속적인 격전 속에서 김정숙이 김일성에게 비상용으로 넣어주었던 한 홉의 미숫가루를 김일성에게 전달하였으나 김일성은 이를 다시 전령병에게 쥐어 주었고 그 전령병은 배낭 속에 간수하였다가 다시 김일성에게 미숫가루를 내놓았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이 미숫가루를 신문지에 붓고 이것을 한말썹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배가 부를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들 모두가 나누어 마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한 홉의 미숫가루는 항일전의 고귀한 양식이었고 김일성이 자기 조국을 위한 자기희생적 복무 정신과 대원들에 대한

83) http://seoul.nodong.org/bbs/skin/ggambo7002_board/pnint.php?id=se_free&no=13555. 2010. 11. 18.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키워주는 혁명적 자양이 깃들어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⁸⁴⁾

‘조선의 경고’에서는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으로 말미암아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임이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침략자들이 끝끝내 이 땅에 파괴와 죽음, 불행을 강요하려 한다면 원수들의 도발한 부정의의 전쟁에는 정의의 전쟁으로 단호히 대답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병사와 인민, 북과 남, 해외의 겨레가 힘을 합쳐 미제를 쳐부수고 자랑찬 통일의 그 날을 맞이해 나갈 것을 선전 선동하였다.⁸⁵⁾

‘김정일 위원장의 실력과 북의 국력’에서는 김일성이 중학 중퇴 학력의 직업정치가이지만 독서와 민중행이 제일 취미로 알려졌으며 독서로 모든 과학 분야를 전문가이상 수준으로 달통하여 최고의 실력으로 북을 비약으로 이끌어 왔다고 찬양 선동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일성을 승계한 김정일이 모든 인류문명을 정통한 천재로 세계에 널리 공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5대 혁명가극, 예술 공연과 대 집단체조 아리랑을 비롯한 문예 걸작들, 주체 탐, 개선문과 같은 세계적 건축 걸작품들, 자체의 인공위성 개발, 제작, 발사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창조한 것들은 하나 같이 세계적 기적들로 꼽힌다고 강변하면서 김정일이 제시하고 이끄는 북의 국가목표는 당연히 세계 최첨단, 최정상이라고 찬양선동 하고 있다.⁸⁶⁾

‘이명박 정권의 목표는 민주노동운동의 말살이다’에서는 이명박 자본가 정권은 비인간-야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용산에

84) http://seoul.nodong.org/bbs/skin/ggambo7002_board/pnint.php?id=se_free&no=10421. 2010. 8. 13.

85) http://seoul.nodong.org/bbs/skin/ggambo7002_board/pnint.php?id=se_free&no=10274. 2010. 8. 4.

86) http://seoul.nodong.org/bbs/skin/ggambo7002_board/pnint.php?id=se_free&no=9501. 2010. 5. 29.

서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을 불로 타살하였으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는 물, 전기, 식량 등을 모두 차단한 채 토끼몰이식으로 죽음의 불구덩이로 몰아갔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명박 정권의 목표는 민주노총의 말살이라고 강력하게 비방선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⁸⁷⁾

사. 자주민보(www.jajuminbo.net)

자주민보는 2000년 5월 창간된 월간 잡지로 남북통일에 관한 다양한 글을 게재하고 있다.

홈페이지 주요 메뉴는 섹션별 주요뉴스로 ‘동영상’, ‘정치사회’, ‘정치분석’, ‘논평’, ‘이북바로알기’, ‘모범을 찾아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9월 5일부터 2011년 2월 15일 현재 기사 등록은 총 6,426건으로 전체방문 69,614,120건 중 하루 평균 172,000여건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북한바로알기’에서는 2010년 북한의 변화상을 종합 정리한 ‘장군님 그제 아닌데’ 논제의 동영상을 소개 선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평양시민의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과 2011년 새해인사를 보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미래상과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인민들의 생활상,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충성심, 아리랑공연, 열병식, 대경축야회, 강성대국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일이 여성예술인의 새집들이를 방문하여 기념품 증정을 비롯한 기념사진 촬영, 성냥, 가루비누, 화장지, 도자기 세트 등을 전달하는

87) http://seoul.nodong.org/bbs/skin/ggambo7002_board/pnint.php?id=se_free&no=7134. 2009. 8. 9.

모습과 김정은 대장과의 사진촬영, 축배 등의 장면을 소개 선전하였다.

‘조선신보 기자의 평양방문기’에서는 날로 변모되는 북한의 경제현실, 주체 철, 주체비료, 주체섬유생산과정과 인민경제 활성화,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비롯하여 자력갱생의 경제발전 모습과 남흥화학연합기업소 및 천리마철강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발전상을 소개선전 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 노선을 찬양하면서 평양시 거리, 시민들의 외모, 식당, 시민들의 자유스러운 모습, 휴대전화, 식료공장, 식료품상점, 신발 및 옷 색깔, 양말 공장, 역전총련식당, 이딸리아 요리 전문식당 등을 자세하게 선전선동 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조중친선발전, 조중문화교류 활성화를 비롯하여 총련 제22차 전체대회가 승리와 단결, 계승 발전의 대회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조국(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에 발마추어 총련이 굳게 단결해 투쟁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아. 기타

주체사상(www.cnet-ta.ne.jp/juche/defaulte.him) 사이트는 국제주체사상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the Juche Idea)의 홈페이지이며 일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한다.

영어판 사이트로 주체사상에 관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어를 사용한다.

본 사이트에서는 주체사상, 주체철학, 사회주의 성취 등을 비롯한 주체사상에 대한 국제회의록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주체사상에 대한 Q&A가 있으며 월별 주체사상연구소 뉴스레터를 찾아 볼 수 있다.

통일학연구소(<http://www.onekorea.org>) 사이트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한다. 통일학연구소의 발표 논문을 주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김정일 선군혁명 이론과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과 북한의 주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http://www.knca.co.jp>) 사이트는 일본에 서버를 두고 한국어, 일어, 영어,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관리자 메일주소는 kcnak@sepia.ocn.ne.jp이다. 김정일 혁명 활동,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출판보도, 국제, 기타, 사진, 동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조선중앙통신사 및 로동신문의 당일 기사를 비롯하여 김정일의 노작, 조선로동당과 북한 관련 정부공식 문건, 조선신보, 조총련 등의 자료 등을 소개 선전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제4장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제1절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문제점

인터넷은 과거 소수의 사람만이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이버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더구나 수많은 포털과 사이트를 만들어 내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그 효력에 있어서도 신문을 능가하고 방송과 비교될 정도로 네티즌에 의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음란과 폭력, 범죄, 친북한 사이트가 범람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면서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사이버상의 취약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다.

특히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에서는 북한 체제의 선전과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우리식사회주의, 연방제통일, 민족공조 등 북한을 찬양선전선동 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현 정권을 사대매국정권 등으로 매도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정권 타도투쟁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통일 정책으로 매도하고 한국의 대통령을 폄하하는 한편 한국사회의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반미, 반정부, 반외세 투쟁을 선전선동 하여 왔다.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친북한 관련 선전선동의 내용들은 한국 대내의

정세 변화와 사회내부의 제반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활용하면서 친북한 추종세력들을 규합시키고 남한혁명의 결정적 시기 조성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실패를 분석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은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를 대남사이버투쟁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국내외 친북한 추종세력들을 조직 사상적으로 규합시키는 한편 이들 조직 및 구성원들을 통해 대남 혁명투쟁 방향 및 투쟁지침을 하달하여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우리민족끼리’와 ‘구국전선’ 등의 홈페이지 주요 메시지를 통해서 친북 추종세력을 규합시키고 매시기 별 대남 투쟁 방향과 투쟁지침을 제시하여 왔다.

특히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대남 지령을 하달하고 활동사항을 인터넷으로 보고받는 등 대북 연락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남혁명투쟁을 촉구하는 내용과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는 찬양선전물들을 원전 그대로 수정 없이 대대적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유포시켜 왔다. 이에 따라 보안경찰은 24시간 사이버 순찰 및 사이버 보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⁸⁸⁾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99년 범청학련 남측본부 정책실장 이00의 경우 북한의 지령을 하달 받고 이메일을 통해 160여회에 걸쳐 북한에 정보 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3년 8월 강00의 경우 일본 거주 공작원 박00에게 포섭되어 인터넷을 통해 10여 차례 대북정보 보고 및 교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일심회 사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대북정보 보고와 교신을 한

88)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08. 258면.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으로 규정하고 남한사회 혁명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이용하면서 주체사상을 전파 또는 반미,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왔다.

이들은 반제민전 사이트 등 해외에 개설된 대남 선전 선동용 인터넷 내용을 복사하여 국내 사회단체 게시판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려 하는데 있어 인터넷상 불법통신행위가 즉시 규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악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 익명성, 광범위성, 쌍방향성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⁸⁹⁾

이는 과거의 무전기나 무인포스트, 접선 등을 통해 지령하고 보고 하던 방법에 비해 진일보한 방법으로 향후 사이버 공간을 통해 첨단 ‘스태가노그래피’를 활용할 가능성⁹⁰⁾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해외의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대부분이 교포 및 교포단체 명의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사이트를 제외하고는 게시판과 이메일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구현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북한 선전자료 및 메시지만을 전달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주제이든 상관없이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그 형식에 관계없이 게시자의 의사대로 글을 올릴 수 있는 특성⁹¹⁾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체제선전, 김부자 우상화, 주체사상,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주의, 주장을 대변하는 자료들

89) 경찰청, 한국경찰사 5권, 경찰청, 2009. 1510면.

90) 스태가노그래피란 비밀메시지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는 텍스트 등 커버라 부르는 다른 미디어에 숨겨서 전송하는 첨단 과학적 기법을 말한다.

91) 인터넷은 기존의 방송, TV, 라디오 등에서 1개의 메시지만을 전파하던 것을 사진, 동영상, 음악, 논평 등을 모아 한번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을 게재하여 선전하면서도 사이트의 게시판과 이메일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게시된 내용물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개진하기 어렵고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책임 추궁 및 통제가 대단히 어려움 실정이다.

더구나 사이버공간을 통해 그들이 주장하는 선전선동의 내용들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전선동의 자료들이 원문 그대로 한국 국민들에게 투사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국내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에서는 북한의 주의, 주장 등을 대변하고 있는 선전선동의 내용물들을 원문 그대로 수정 없이 게재 선전선동하면서 한국사회의 체제변혁과 한국 국민들의 사상적 변화를 꾀하고 있는 의식화선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인터넷상의 사이버 투쟁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⁹²⁾

현 정부와 자본주의사회를 타도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한다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계급투쟁에 의한 폭력혁명투쟁을 선전선동 하는 한편 각 계각층 각 분야에 좌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조직적인 결집을 촉구하면서 고도의 정신세계인 문화예술분야까지 침투하여 문예창작활동을 혁명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 내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의식화·조직화 공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넷째, 북한체제를 선전선동하면서 우리식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주

92)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촛불로 위장한 안보위해세력”,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2009. 8~13면.

체사상, 선군정치,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 및 김부자의 혁명투쟁 업적을 미화, 찬양 선동하고 있다.

①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과 우리식사회주의를 미화 찬양하면서 주체사상학습을 선전하여 왔다.

②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혁명투쟁 업적과 그의 가계를 과장하여 이를 미화 찬양하면서 김일성·김정일의 지도력 및 외교능력, 각종 저작물, 이념서적 등을 대대적으로 소개 선전하였다.

③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 통일전선전술, 대남투쟁 3대 과제, 조국통일 3대헌장, 연방제통일반안 등을 정당화하면서 대남혁명전략전술을 지지 선전하고 있다.

④ 북한의 역사관과 정통성을 운운하면서 북한의 통일정책과 복지정책, 경제정책을 비롯한 문예작품 및 창작물들을 미화 찬양하면서 북한 원전을 그대로 소개 선전하였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정책 등을 비난하면서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사건 등을 정부와 연계시켜 정부와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 국론분열을 조장시키는 한편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정권타도 투쟁 등 반미,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사대매국정권으로 매도하면서 정권타도 투쟁을 선전선동 하였다.

② 한국의 대통령을 폄하 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통일 정책으로 매도하면서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한미정부에 전가시켜 왔다.

③ 한국의 제반정책을 비롯한 민생안정, 특정인 비방, 각종사건사고, 노사분규,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을 정부와 연계시켜 국민의 불신감을 조장하면서 국론분열을 야기 시켜 왔다.

④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북침전쟁으로 매도하면서 그 이슈가 제기될 때 마다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시키고 있다.

여섯째, 사이버 보안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법적용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에 대해서 처벌할 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에 있어서 처벌 규정이 모호하고, 인터넷상 가상 이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시자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① 사이버상 안보위해세력들의 안보위해문건 반포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수사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게재 행위에 대해서 사법처리가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②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안보위해문건 반포행위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③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본죄가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며 행위요건 및 구증정도에도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④ 인터넷상의 친북 불법사이트를 발견하고도 이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정보를 삭제하기까지에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며 신속 정확한 사건처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친북한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정보 삭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하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사 의결하여 불법사이트(정보)로 의결될 경우 해외사이트에 한해 차단 조치하고 있다.

국내 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1차적으로 폐쇄 혹은 삭제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렇지만 삭제명령이 하달 한 후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발장을 받아 사법처리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약 90여일의 기간이 소모되고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불법정보가 방치되어 일부 게시물에는 방문자가 1,000건에 달할 정도로 게시물의 게시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 및 국내안보위해세력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⑤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건은 국가보안법위반정보에 대해 폐쇄하거나 문건에 대한 삭제가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정보(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인터폴⁹³⁾을 통한 공조수사 및 범죄인 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한 공조수사 등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일곱째, 북한은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여 제제선전 등을 통한 친북의식화, 대남정보 수집, 정보교란, 한국 내 주요기관에 대한 해킹⁹⁴⁾을 비롯하여 각종유언비어 살포, 사이버테러 및 간첩교신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외 지역에서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

93) 인터폴은 전 세계 110여개 회원국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경찰공조가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창구로서 24시간 국제 통신망을 이용 운영되고 있다.

94) 북한의 대표적 해커조직으로는 정찰총국 사이버지도국, 35호실, 기초자료조사실, 작전처 등이 있다.

를 도용하여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국가 안보정책과 군사전략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며 향후 사이버전까지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사전 대응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대응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일방적으로 우리식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김부자 우상화를 비롯하여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과대 찬양선전선동 하면서 다양한 정보수집 및 정보조작, 사회혼란, 법치파괴, 안보해체, 폭란선동을 위한 선전선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이념과 통치방식 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문제점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

경찰청은 2011년 5월 31일 현재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를 1,000여개로 파악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신뢰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①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북한 직영 · 해외 · 국내)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②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신규 또는 소멸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사안별 대응전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사이버 역공작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④ 친북한 인터넷상에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에 적극 동조하거나 공산주의 혁명이론에 입각한 민중혁명투쟁을 선전선동 하는 서적이거나 유인물,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사회주의 문학작품 등을 게재하

고 이를 선전선동하면서 국론분열을 유포하고 사회의 불만세력들을 결집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안보위해세력들의 체제전복 기도를 사전에 분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좌경사상 확산의 진원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이를 발본색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에 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① 정부는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단순열람의 경우 전면 허용⁹⁵⁾하고 이를 합법화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없는 회원가입 및 게시판의 글쓰기 등이 불법이라는 현행법을 해석 적용⁹⁶⁾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는 광의의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의 단순열람 자체도 북한 주민 접촉에 해당된다. 그것은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다는 자체가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야 하고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대북 접촉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95) 제3국에서 운용 중인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자료를 단순열람,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제한 없이 허용(북한 주민 사전 접속승인제도 적용 배제 대상) 하고 있다.

96) 남북 교류협력법시행령 제19조에 제3항에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 접촉승인 신청에 대해 제19조 제1항은 접촉의 범위를 왕래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을, 제2항 신청기한 및 방법은 접촉 15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신청서, 신원진술서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 직접 신청, 우편 신청, 대리 신청이 모두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주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며, 제4항은 신청 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 전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전 접촉 승인을 득하지 않고 위와 같은 형태의 접촉을 시도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남북한 인터넷 교류를 실시한 후 7일 이내 통일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② 북한의 원전 등을 보고 배우는 것은 합법(무조건 허용)이고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하여 반박하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은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등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친북 성향의 한국 국민들이 북한 자료를 임의로 전송받거나 다운받아 자신의 홈페이지나 이적단체 사이트에 그대로 게시하여 무분별한 북한의 사상 등을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 8항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금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남 사이버투쟁에 대한 처벌근거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상에서 친북관련 게시물⁹⁷⁾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보완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들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④ 정부는 평화통일세력을 가장해 대남 적화전략을 획책하는 세력을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남북화해를 기회 삼아 북한을 조국으로 섬기는 이적분자들이 활개 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⁹⁸⁾

셋째,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안보관련 법제를 새롭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

①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사법처리 및 폐쇄 근거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⁹⁹⁾ 제1항과 제5항을 모태로 하여 정보통신망이

97) 대남 사이버투쟁, 사이버 공작, 사이버테러, 해킹과, 국내 웹사이트에 북한관련 게시물 등

98) 세계일보. 2007. 2. 10.

99)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3조(벌칙) 조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 제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삭제 규정에 의해 해당사이트(해외)를 차단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보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해당 사이트 처리과정이 90여일 이라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이 기간에 게시자들이 올린 게시물들은 어느 정도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신속정확하게 차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반국가적 정보 규제를 위한 법률 및 절차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주의 주장에 대한 선전선동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현행 음란사이트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세에 대처하여 이를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① 사이버상에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물을 완전히 차단 시킨다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상 매우 어렵다.

②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사상투쟁을 목적으로 한 북한의 대대적인 선전선동이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유포될 것이다.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 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때문에 사이버상의 선전선동 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에 대처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북한은 총참모부 산하 지휘자동화국을 두고 각 군단에는 전자전연구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약 3만 명에 달하는 사이버전 대응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군의 지휘통신을 보장하고 적군의 지휘통신을 마비시키기 위해 전자전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각종 장비들을 개발하여 왔다.

더구나 군 및 대남공작기관들에 인트라넷 상에서 가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적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각종 신종 바이러스를 만들어 내거나 자료 변조 및 스니퍼 시키는 코드들을 조작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¹⁰⁰⁾

④ 사이버 안보상 정보수집 및 분석,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사이버안보 위해활동에 대한 점검 목록과 대응매뉴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⑤ 국가사이버 공간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 차원의 C4I체제와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가동하여 국가사이버 공간의 적극적인 방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⑥ 인터넷을 통해 북한을 추종하거나 동조하는 친북 추종세력들을 철저히 추적하여 이들 사이트를 조기에 발견하고 불법정보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내사와 수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경찰청 사이버보안계를 보안사이버수사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안경찰의 조직 역량 강화 및 장비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

100) 대남 사이버공작조직으로는 경찰총국 121국, 중앙당, 25호실, 작전처, 적공국 204소 등이 있다. 특히 경찰총국 121국에 3,000여명, 중앙당 조사부에 100여명의 해커 부대가 편성되어 지휘자동화국과 경찰총국에는 전담하여 팀제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해야 한다.

① 경찰청 보안국의 사이버보안계를 분석기능과 수사기능이 결합된 사이버보안수사대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보안경찰은 인터넷이 지니는 취약성을 찾아내고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부터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제거하고 보호하는 사이버 치안활동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②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사이버보안수사요원의 전문화, 정예화, 장비의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사이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용시 컴퓨터 관련학과 전공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이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이버 보안사범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하는데 기본적인 장비로서는 인터넷 서버, 라우터 등 통신장비, 해커추적 수사 장비, RAID 백업 장비 등이 필요하다.¹⁰¹⁾ 따라서 첨단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③ 안보수사기관의 정상적 가동과 안보요원들의 의식 선진화가 필요하다.

④ 보안경찰 조직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보안경찰 조직을 대폭 축소하여 왔다. 따라서 축소된 광역수사대 및 경찰서 보안과를 원래대로 환원시키고 감축한 보안경찰을 증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민간차원의 사이버안보감시망을 구축하고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안보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01) 주성진, “사이버테러의 실패와 사이버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5. 94면.

① 민간 전문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킹이나 역 추적 기법 등 급변하는 사이버 보안투쟁 기법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② 대국민 홍보 및 정보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교육, 안보교육을 활성화하여 대국민 안보교육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③ 민관군 합동 사이버 방어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 공간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전반에 사이버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면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제5장 결론

지금까지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실패와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달성한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정보화 정책과 인터넷 변천과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북한의 정보화정책은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체제선전에 중점을 두고 정보화의 대중화가 가져올 사회적 동요와 체제불안에 대처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군사력 건설과 군의 현대화를 추구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IT 기반시설 구축, 전문가 양성, 경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의 인터넷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 공장기업소, 학교, 연구소 등의 단위로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매우 제한적으로 인터넷 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대내적으로는 폐쇄성의 정책을 일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와 대중화의 추세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1993년 호주와 인터넷을 시험적으로 연결하고 1997년까지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측면에서 군사 분야와 체제선전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였다.

1998년부터는 경제 분야에 확대되어 투자 유치, 상품판매, 관광 등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실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컴퓨터 보급률은 약 13만대로 파악되며 2008년 기준 3만 4천여 명의 IT전문 인력과 매해 1,400여명의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다.

일부 직영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한편 2007년 정식으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을 갖추고 'KP' 도메인을 운영 하여 왔다.

내부적으로는 특수기관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의 활용이 제한되며 '광명' (인트라넷)을 통해 1,300여 기관에 연결되어 있고 2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갖추고 있다.

둘째는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는 2011년 5월 31일 현재 1,000여개로 파악되었다. 이중 북한 직영 및 해외사이트는 120여개로 18개 국가에 분포되어 있고 76개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다.

국내의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는 840여개로 사회분야 600여개, 노동분야 170여개, 학원분야 100여개로 밝혀졌다.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주요 내용은 북한 체제선전, 김부자 우상화,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연방제통일, 민족공조, 우리식사회주의 등을 찬양선전선동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정책을 비난하면서 한국 내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을 정부와 연계하여 정부와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반미, 반정부 투쟁의식 등을 고취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더구나 북한은 이들 사이트를 대남사이버투쟁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친북한 추종세력들을 규합시키고 대남투쟁 방향 및 투쟁 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북한의 주의, 주장 등을 대변하고 있는 선전선동의 내용들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고, 이를 찬양 선전선동 하면서 한국사회의 체제변혁과 국

민들의 사상적 변화를 피하여 왔다.

특히 사이버 보안사건의 수사에 있어 게시자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고 처벌규정이 모호하여 법적용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는 친북한 인터넷사이트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북한은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여 체제선전 등을 통한 친북의식화, 대남정보수집, 정보교란, 한국 내 주요 기관에 대한 해킹, 각종 유언비어 살포, 사이버테러, 간첩교신, 사이버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들 사이트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남 사이버공세에 대처한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안보관련 법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처벌규정을 명확히 할 것, 보안경찰의 조직역량 강화, 장비의 현대화, 민간차원의 사이버안보망 구축, 사이버 안보교육 강화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자료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자들에 의해 보완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08.
- , 한국경찰사 5권, 경찰청, 2009.
- 고경민, 북한의 IT전략,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고민경 · 이희진 · 장승권, “북한의 IT 딜레마의 이중전략 : 인터넷 정책과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14권 제4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년 겨울호,
-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촛불로 위장한 안보위해세력”,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2009.
- 김유향, “북한의 정보화 교육”,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경인문화사, 2006.
- 김홍광, “북한의 사이버정보실태”, 북한 2005년 5월호, 북한연구소, 2005.
- 남성욱, “인터넷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현황”,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1호 2000.
- 박순옥, “사이버상의 보안경찰 활동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정원, 북한의 IT법제와 남북 IT교류협력의 제도화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1999.
- 송경호, On-Off라인상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실태 전망, 2009 책임연구 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09.
- 유동열, “북한 및 국내 좌파권의 사이버투쟁 실태”, 자유민주연구 제 2권 제2호, 자유민주연구학회, 2007.
- 윤요셉, “데이터베이스관리체계 광명에 대한 분석”, 북한과학기술연구 제2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
- 주성진, “사이버테러의 실태와 사이버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주임환, “인터넷 친북한 사이트를 통한 대남심리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조인상, 정신전력연구, “북한 및 친북 좌파경향 인터넷 사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정신전력연구 제35호, 2004.
- 최정님,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남심리전 전개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통계청, KAIT, ITU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2004.
- 통일연구원, “남북한 인터넷 교류 · 협력 발전방안”, 통일연구원, 2004.
- , 남북한 IT용어비교, 통일연구원, 2006.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2. 북한문헌

김정일, 김정일 선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새 세기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김정일 선집 제 1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3. 외국문헌

Jung-Yul Cho, "North Korea and the Internet", paper submitted to the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Policy Division, OF the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2000 Convention, Phoenix, AZ.

4. 기타자료

교토통신, 2001. 8.1.

동아일보, 2011. 5. 19, 2011. 6. 2.

로동신문, 1999. 1. 6.

-----, 2001. 6. 11, 8. 12.

-----, 2007. 12. 29.

-----, 2011. 1. 1.

세계일보, 2007. 2. 10.

연합뉴스, 2003. 7. 10, 11. 28.

-----, 2004. 5. 27.

조선중앙방송, 2001. 4. 22.

조선일보, 1999. 4. 12.

-----, 2007. 3. 16.

중앙일보, 2003. 2. 26.

한국일보, 1995. 12. 1.

www.daedong615.com/nonmun/nonmun050815.htm. 2011. 3. 21.

www.daedong615.com/nonmun/nonmun051101.htm. 2011. 3. 21.

www.daedong615.com/nonmun/kigo051001.htm. 2011. 3. 21.

www.daedong615.com/nonmun/kigo100323.htm. 2011. 3. 21.

www.daedong615.com/nonmun/shipyong080305.htm. 2011. 3. 21.

hcy.jinbo.net. 2011.1. 31.

seoul.nodong.org/bbs/skin/ggambo7002_board/pnint.php?id=se_free&no=16078. 2011. 1. 31.

seoul.nodong.org/bbs/skin/ggambo7002_board/pnint.php?id=se_free&no=16077. 2011. 1. 31.

seoul.nodong.org/bbs/skin/ggambo7002_board/pnint.php?id=se_free&no=15652. 2011. 1. 11.

seoul.nodong.org/bbs/skin/ggambo7002_board/pnint.php?id=se_free&no=13555. 2010. 11. 18.

seoul.nodong.org/bbs/skin/ggambo7002_board/pnint.php?id=se_free&no=10421. 2010. 8. 13.

seoul.nodong.org/bbs/skin/ggambo7002_board/pnint.php?id=se_free&
no=10274. 2010. 8. 4.

seoul.nodong.org/bbs/skin/ggambo7002_board/pnint.php?id=se_free&
no=9501. 2010. 5. 29.

seoul.nodong.org/bbs/skin/ggambo7002_board/pnint.php?id=se_free&
no=7134. 2009. 8. 9.

책임연구보고서 2011-06

친북한 인터넷사이트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11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 한 광 일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